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인물] 로봇공학자는 나의 꿈! 명신고 1학년 박성국
- ▶◀ [청소년뉴스] 해외 뮤지션들의 극찬... 방탄소년단의 시대가 열렸다
진열대에 늘어놓은 한국 캐비닛에 숨겨놓은 영국
청소년 4명 중 1명 매일 휴식·자유시간 전혀 없어
- ▶◀ [학교소식] 진주기공 스승·선배와 동행하는 천왕봉 등반
진주YMCA 지방선거 청소년 정책 제안
진주 경진고 뷰티과, 국제미용대회서
명문 동명고 통일골든벨 올린다
대아고 제 51회 충무공탄신 기념 행군
- ▶◀ [맷강년맷반] 동명고등학교 2학년 4반편
- ▶◀ [맷강년맷반-신청] 삼현여고 2학년 8반편
- ▶◀ [19금 토크] 생리는 19금이 아니야
- ▶◀ [특집] 6월13일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 ▶◀ [현장취재] 토크쇼 '청소년, 섹스를 말하다' 현장을 가다
- ▶◀ [글로벌미팅] 경상대학교 몽골 유학생 히식바트를 만나다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교실과 베란다?
- ▶◀ [편의점을 털어라] 오지치즈후라이, 떡볶이리조또를 만들어 봤어요
- ▶◀ [동아리탐방] 명신고 밴드동아리 발악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전 교실 전자칠판 & 교실마다 베란다
- ▶◀ [동네투어] 가호동에서 놀만한 곳? 필통만 믿어봐!
- ▶◀ [JOB을 잡아라] 119안전센터 김재민 소방교를 만나다
-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진주고 2학년 오준섭~을 소개합니다
- ▶◀ [필통쇼] 체육대회 줄다리기 여고의 전설이 되다
덜컹~~ 16명 엘리베이터에 갇히다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필통실험실] 불고기버거 4사 브랜드별 비교분석
- ▶◀ [취재수첩] 학교 옥상은 출입금지 구역?
진로, 벌써 정해야 해요?
반티,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입나?
74.9% 석면학교, 숨 쉬는 것도 공포
아, 냄새 난다! 냄새!
피어싱? 짝 막힌 것은 어른들의 생각일까?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5월호 문제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움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가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이달의 인물] 로봇공학자는 나의 꿈! 명신고 1학년 박성국

“로봇은 이제 우리들의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같은 존재입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명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박성국 이
라고 합니다.

Q. 장래희망이 무엇인가요?

A. 제 꿈은 로봇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봇
공학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로봇을 만
들고 디버깅을 하며 로봇에 대해 연구하는 일
을 합니다.

(디버깅 : 동일항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변수를 분석하고 익히며 정확에 가깝게 하는
일)

Q. 어떻게 처음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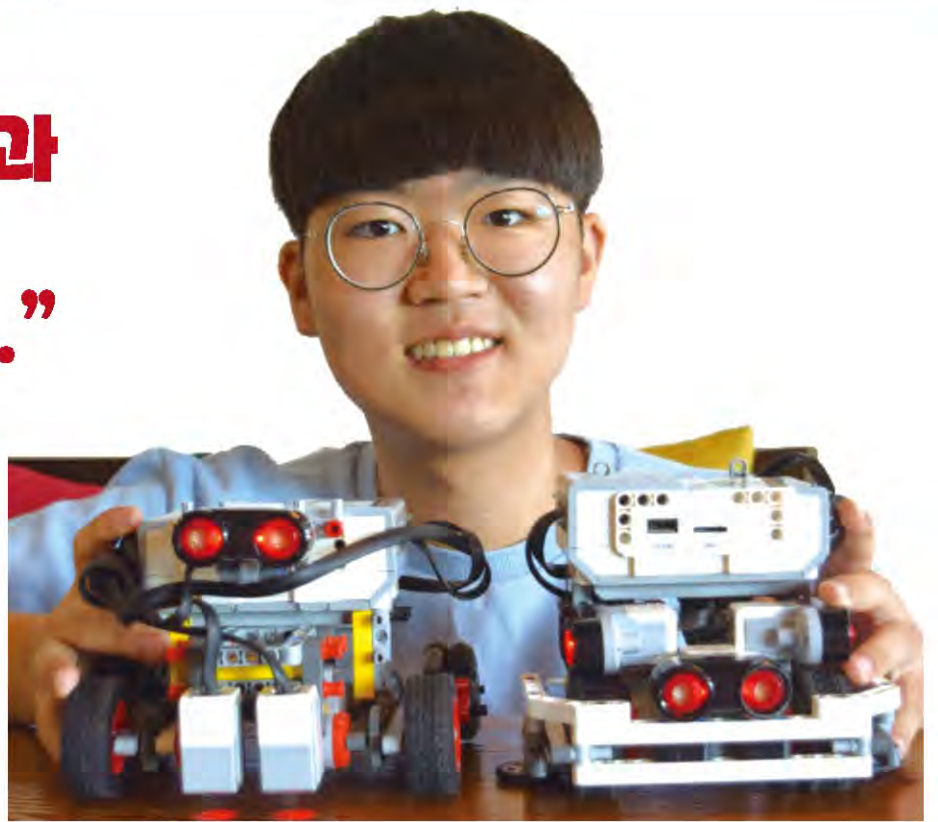
A. 어릴 때부터 기계를 자주 접했고,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많아져 로봇에 대해 호기심이
커졌죠. 그 후 로봇관련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
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져 들어요.

Q. 만드는 로봇 종류는 무엇인가요?

A. EV3라는 모델키트 만들어요. 그냥 생각하
는 웬만한 것은 모두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큐브 맞추는 로봇도 있어요. 키트
여러 개를 사용하여 큐브를 2~3초 만에 맞
추기 등이 가능하지만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
해 더 노력하고 연습중이에요.

Q. 수상경력이 있다 들었는데 입상 후 들었던
생각은?

A. 세계 태국 로봇컵에 나가 레스큐 부분에서
최다구조자, 베스트 솔루션(로봇, 프로그래
밍 모두) 1등, 한국 로봇컵 레스큐 1등을 했어
요. 경기를 치르기 위해 처음 태국에 갔을 때
한국이랑 규정이 달라 당황했지만 팀원 중 형
한명이 밤새 고민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
는 것 같아요. 큰 대회인지만 당황도 많이 하
고 실수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함께 한 형들
이 항상 격려, 조언을 해줘서 위기를 잘 넘길



력을 줘서 4륜구동으로 바꾸면서 잘 헤쳐나간
것이 기억에 남네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든 처음 부딪히면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정
답이 있죠.

로봇은 그래요. 그게 매력이죠.

Q. 로봇의 매력이 뭐라 생각 하나요?

A. 항상 만들어준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웬만
해서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매력이라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미래의 안정된 일꾼이
자 함께 살아가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로봇의 매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
다.

Q.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A. 꾸준히 로봇을 만들고 연습하지만 확실히
혼자서 보던 대회에서 경쟁자와 경쟁하며 주
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력을 쌓는데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크고 작은 대회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열심히 꿈을 향해

Q. 자신에게 있어 로봇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오글거려야 돼요?(웃음) 전 원래 자동차가
좋아 모터쇼도 자주 가고 요즘 무인자동차에
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런쪽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구요. 다 로봇과 관련된 것입
니다. 로봇은 제가 꿈꾸는 길, 하고 싶은 것에
더 쉽고 흥미 있게 다가가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Q. 로봇이나 기계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A. 뭐든 처음 부딪히면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정답이 있죠. 로봇은 그래요. 그게 매력이죠.
찾고 반복해서 풀고, 집중하고, 고민하면 어김
없이 답이 있고 길이 있거든요.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요. 언제나 해결
책은 존재하니까요. 즐기면서 도전해 보았
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러고 싶어요.

뭐든 처음 부딪히면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정답이 있죠.
로봇은 그래요. 그게 매력이죠.

Q. 조금은 색다른 꿈을 정한 후 주위의 반응
은 어땠나요?

A. 부모님께선 제가 꿈을 정한 이후에도 항상
믿고 지원해주셨어요. 친구들은 로봇공학자라
는 직업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제가 큰 대회
를 나가 상을 받아오니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 있었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은?

A. 호주 로봇컵에 나가 추구하는 로봇을 만들
었어요. 원래 그 로봇은 공을 한 번만 치는데
원통처럼 굴리며 공을 계속 치는 로봇을 만들
게 기억에 남아요. 또, 처음 레스큐를 시작할
때 장애물에 자주 걸렸는데 다른 바퀴에도 동



<팀원들과 함께 연습하는 모습>



<2016 호주 로봇컵 2등>



<2017 창의코딩대회 수상>



<2017 호주 로봇컵 3등>



<2017 태국 로봇컵 팀원들과 함께>



<2017 태국 로봇컵 3등>



<2017 태국 로봇컵 시상식>



해외 뮤지션들의 극찬... 방탄소년단의 시대가 열렸다

빌보드 앨범 1위, 싱글 10위... 역사를 바꾼 BTS



방탄소년단(RM, 뷔, 정국, 슈가, 진, 제이홉, 지민)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빌보드 앨범 차트 꼭대기에 'BTS'(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비 영어권 앨범이 1위에 오른 것은 2006년 팜페라 그룹 일 디보(Il Divo) 이후 12년 만이다.

빌보드 차트는 미국 내 앨범 판매량을 기준

으로 매겨진다. 음악 시장이 음반에서 스트리밍 위주로 재편되면서, 앨범 차트는 예전만 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시장 내에 거대한 규모의 팬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대중음악매체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방탄소년단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지배했다'는 수사를 붙였다.

미국에서 들려온 쾌거에 미쳐 다 놀라기도 전, 타이틀곡 'Fake Love'가 빌보드 Hot 100(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는 소식마저 전해졌다. 'DNA'가 67위, 'MIC DROP'이 28위에 오른 바 있으니 곡을 낼 때마다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싱글 차트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떤 곡이 인기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필수적인 지

표다. 빌보드 싱글 차트는 온라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그리고 라디오 방송 실적 등을 합산하여 집계된다. 아직 라디오 성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높은 순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했을 때, 'Best Of Me'를 함께 작업한 체인스모커스는 이들을 '인터내셔널 팝스타'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얼마 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켈리 클락슨은 방탄소년단을 '세계 최고의 보이 밴드'라고 소개했다. '설마'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이 표현을 립 서비스로 여기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한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없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 음악의 맛을 잘 살리는 뮤직비디오, 앨범과 앨

범 사이에 이어지는 콘서트,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쌓아온 팬덤 '아미'(Army)와의 유대 관계, 아미의 능동적인 행동력, 그리고 리더 RM의 능란한 인터뷰 기술 등 수많은 요소가 얹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방탄소년단만의 서사다.

방탄소년단은 데뷔와 동시에 슈퍼스타가 된 팀이 아니다. 2013년, 'No More Dream'으로 데뷔한 이후, 방탄소년단은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왔다. 앨범 판매량도, 콘서트의 규모도 서서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여기에 있다. 방탄소년단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가 목표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그러나 지금 누가 그들이 꾸는 꿈을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Airplane'(제이홉의 믹스테이프)의 노랫말처럼, 그들은 이미 구름을 타고 있다.

진열대에 늘어놓은 한국 캐비닛에 숨겨놓은 영국

담배 이제는 OUT! 58개국, 담배 진열도 못하게 해 86개국선 소매점내 광고 금지



편의점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계산대다. 그 뒤에는 화려한 색상의 담배가 진열돼 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띈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의 시선이 주로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닌 담배 광고였다.

상당수 국가에선 이게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슈퍼

등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국가가 58개국이나 된다. 호주가 그중 한 곳이다. 여기서 담배를 사려면 내부가 보이지 않는 사물함에 붙여진 가격표를 본 뒤 점원에게 물건을 주문해야 한다. 담배와 관련한 어떤 진열도 불법이다. 영국 역시 담배가 들어 있는 캐비닛 문에는 '토바코(tobacco·담배)'라고만 적혀 있다. 불투명한 유리여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이 요청

할 경우에만 캐비닛 안을 보여준 뒤 담배를 고르게 한다. 핀란드도 성인이 요구할 때만 제품과 가격표를 꺼내 보여준다.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못 하게 하는 나라는 86개 국가나 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담배뿐 아니라 파이프나 담배케이스 등 담배와 관련한 모든 용품의 광고를 소매점 내에서 할 수 없다.

◀〈편의점 계산대에 담배 광고가 가득(위 사진). 반면 영국은 담배를 'Tobacco'란 글자만 보이는 불투명 캐비닛에 넣어 판매한다〉

청소년 4명 중 1명 매일 휴식·자유시간 전혀 없어

0.9%만 국제 권장기준대로 생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4명 중 1명 가량은 하루에 휴식과 자유시간이 전혀 없는 것

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 11~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만 10~18세) 6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행복생활지수' 연구결과를 5월2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재단이 설정한 하루 권장 수면시간은 초등 고학년 9~12시간, 중학생 8~10시간, 고등학생 8~10시간이다. 권장 공부시간은 초등 고학년 30~120분, 중학생 60~150분, 고등학생 90~180분이다. 권장 운동시간과 미디어사용시간은 학년과 관계

없이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동일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공부·운동·미디어 등 4가지 영역에서 모두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은 100명 중 1명(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4.7%는 4가지 영역 중 하나도 권장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4.2%는 하루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노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변한 전체 아동·청소년 중 46.4%(2902명)는 권장시간 이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40.4%(2596명)는 덜 자고, 74.2%(4664명)는 적게 운동하며, 62.2%(3875명)는 더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 시간으로, 이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2016년 OECD 통계자료 기준)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학생부 간소화, 달라지는 학생부 기재 사항?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생부의 신뢰성 확보를 취지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정해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후 하반기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미정의 사항이지만 학생부 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학생부의 기록 사항에서 축소, 삭제 되는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삭제되는 항목은 수상경력 및 진로희망사항이다. 또한 인적사항과 학정사항이 통합되면서 부모의 개인정보는 기재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봉사활동 특기사항,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 자율동아리가 미기재 사항이 됐다. 또한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방과후 학교 활동도 기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안에 따라 바뀐다면 학

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 정규 교과수업 중 진행된 소논문(R&E) 활동 및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봉사실적,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독서활동상황, 자유학기 활동상황 등은 기재 대상이다. 분량의 축소는 예상되나 교과 학습발달상황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명칭이 바뀌어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업우수성을 평가하는데 현재 '세특'으로 불리는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학생에게 교과별 세부능력사항의 기재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가장 큰 변별력을 둘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과 활동이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차별화된 자기 주도성과 학업적 역량을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서류평가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Z세대' 업고 미디어판을 흔들다

유튜브가 20대 이하 젊은 층, 이른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 출생)의 지지를 받으며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TV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다. 이들은 동영상 뿐만 아니라,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제작된 텍스트 콘텐츠들도 유튜브를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 콘텐츠 종류에 관계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케터들 사이에선 "유튜브가 최대의 적"이라는 볼멘 소리마저 나온다.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가수나 같은 연예인이 장래희망 1순위였지만, 요즘은 이른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바뀌었다.

모든 길은 유튜브로 통한다. 유튜브는 최근 실

시된 각종 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로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PC에서는 53.1%, 모바일에서는 56.5%가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Year of Video'. 지난해 말, 미디어업계 전문가들은 2018년을 동영상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를 이렇게 정의했다. 타고 넘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텍스트나 플타임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게 느껴진다. 길어야 30초 분량 안에 핵심 주제만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다.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유튜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기공 스승·선배와 동행하는 천왕봉 등반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기백)는 '기술역량! 글로벌역량! 미래역량!'이라는 학교 비전에 따라 지난 5월25일 1학년 181명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지리산 등반 현장극기체험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소동, 배려, 감동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튼튼한 체력과 빼어난 실력, 취업 의지를 갖추어 행복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교직원들과 동문 선배들의 뜻이 담겨있다. 진주기계공고는 이번 극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24명)과



동문 선배(조병희 수석산행대장 외 7명) 그리고 학생이 같이 산행을 실시함으로써 사제 간, 선후배 간에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중 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 장학금 전달

진주중학교는 지난 4월24일 진주시민버스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버스노동자 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5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버스노동자 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는 버스 노동자로 일해 온故정태봉(진주중 21회)씨가 시민버스 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10년 전 유명을 달리 하면서, 함께 일해 온 버스 노동자들이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의 성금을 모으면서 설립됐다. 장학회는故정태봉 열사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모교인 진주중학교에



2017학년도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연 500만 원씩 영구히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YMCA 지방선거 청소년 정책 제안

진주YMCA 청소년미디어활동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며,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진주YMCA는 5월29일 오후 1시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진주YMCA 청소년미디어활동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36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최첨단 실습장 갖춘다

경남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7개 학교가 최첨단 실습장으로 변신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67억원을 투입해 이들 학교 280여 종의 노후 기자재 교체, 948개의 신규 기자재 확충과 함께 88개의 실습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번 실습장 개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 과정에 따른 것이다. NCC는 직업계고 기술인력 양성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전환해 능력과 일자리 중심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15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33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4개 공동실습소의 447개 실습실에 매년 기자재 확충비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명중 2018 진주남가람 수학축제 부스 운영



5월 26일, 27일 양일간 진주성내 국립진주박물관 앞에서 2018. 진주남가람수학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들 동안 약 4,000명 이상의 체험객이 축제 현장에 참가하여 직접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생활 속으로 파고든 수학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축제는 학생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수학동아리(연구회)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역사 및 진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27개 부스에서 다양한 수학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부스 5개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에게는 창의적체험활동 6시간이 인정되는 등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동명중학교는 성필용 선생님과 수학동아리 'MATH-S.P.Y'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김시민장군 하트 퍼즐 만들기'라는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진주동명중의 성필용 선생님과 박승욱 학생은 개회식 커팅행사에 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표로 참석하였다.

진주중 역도부 문형찬 학생 은빛 쾌거

진주중학교 역도부는 5월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개최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

도 경기대회에 출전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한 진주중학교 3학년 5반 문형찬 학생이 웅상에서 2위, 종합에서 2위를 차지해 각 은메달을 획득, 총 2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진경남서부보훈지청 진주여중 현충시설 결연

경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덕석)은 지난 5월29일 진주여자중학교(교장 이도수)와 현충시설 사랑을 위한 공동협력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현충시설로 지정된 '한치문 공적비 및 한필동 공훈비'와 진주여자중학교의 1대1 결연을 통해 진주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해당 현충시설을 활용한 봉사활동, 환경경화 활동 및 현장교육활동, 현충시설 관련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진주봉원중 밤하늘의 별빛에 빠지다



봉원중학교(교장 조일래)는 지난 5월4~5일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습문화영역 세부프로그램으로 교과서와 함께하는 문화투게더 '별빛 캠프'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경보호 생태체험을 실시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캠프에는 계절별 별자리, 태양계, 별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망원경으로 직접 별자리 및 태양을 관측했다. 또한 태양열 조리기 체험과 해시계 만들기 체험, 생태체험과 요리체험을 진행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습을 경험하게 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진주제일중 진로진학설명회 특강

진주제일중학교는 2017년 5월14일 3학년을 대상으로 교내 청송관(강당)에서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 및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경남도교육청 양수민 강사와 함께 진로진학 설명회를 가졌다.

진양고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장 명산 탐방

진주 진양고등학교(교장 강태석)는 '모두가 즐거운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월12일 400여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등반길에 오르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 정책 공모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 고장 사랑학교'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장 명산 탐방' 프로그램의 첫 산행으로 1학년은 망진산, 2학년은 월야산, 3학년은 칠봉산을 등반했다.

경남교육청, 경남상업경진대회 경남정보고서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8회 경남상업경진대회가 5월24일 진

5월의 한 컷!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스승의 날 '감사장'. 감사장의 이유는 유쾌하고, 센스 있으며,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주 경남상업정보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학생 27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상업·정보계열 학생들이 필수과목인 회계 실무를 비롯해 ▲창업 실무 ▲사무 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비즈니스 영어 ▲ERP(전자적자원관리) ▲금융 실무 ▲취업설계 포트폴리오 ▲호텔식음료서비스 실무 ▲세무 실무 ▲동아리 엑스포 ▲동아리 페스티벌 ▲경제 골든벨 13개 종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한 문항으로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2011학년도 5개 종목으로 첫 출발한 경남

상업경진대회는 대회 종목을 계속 늘려 이번 2018학년도 제8회 대회에서는 13종목을 실시한다. 시상은 종목별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에게는 교육감상 시상과 함께 오는 9월 5~7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진주 경진고 뷰티과 국제미용대회서 두각



진주 경진고등학교(교장 오세흠)는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2018 제10회 IBO국제미용올림픽기능경기대회'에서 헤어, 메이크업 등 4개분야에서 총 41개의 상을 차지했다고 5월27일 밝혔다.경진고는 고등부에

40명의 학생이 출전해 '펌 와인딩' 종목부 1등(금상 전민아)과 커트부분 1등(금상 이경규)을 비롯해 은상 6명, 동상 13명, 장려상 12명 등 모든 학생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대아고 제 51회 충무공탄신 기념 행군



대아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제 51회 충무공탄신 기념 행군을 실시하였다. 올해 행군에는 교직원 78명, 재학생 963명 등 총 1141명이 학교를 출발해 진주성 계사순의단 참배, 남강둔치 예나길 순례, 진양호와 숙호산 등 총 21km를 완주

했다. 대아고는 1968년부터 올해로 51년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행군을 실시하고 있다. 대아고 모든 학생들은 행군을 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명문 동명고 통일골든벨 울리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광주)는 5월16일 창원시 진해구민체육관에서 경남 지역 32개교 750명 고등학생 및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민주평통 경남지역 고등학생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통일골든벨은 청소년들의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통한 통일 인재 육성 및 더불어 참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날 경남대회에서는 진

주동명고 1학년 장진산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통일골든벨을 울렸다. 최우수상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차관급)상이 주어져며, 우수상(경남도교육감상)에는 진주동명고 1학년 신동현 학생이 수상, 진주동명고 조준형 교사는 최다 입상 학생을 배출하여 최우수 교사상(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오는 8월에 있을 'KBS-1TV 도전! 골든벨 특집방송'에 출전할 기회가 부여된다.

삼현여고, 10년째 사랑의 쌀 전달로 나눔 문화 실천

삼현여자고등학교 학생회가 2009년부터 10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삼현여자고등학교는 5월28일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전달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건소에 쌀 30포대(600kg)를 기탁해왔다. 이 쌀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은 것으로 '이웃사랑 쌀 모으기 운동'이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기탁한 쌀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대상 가구 중 어려운 30가구를 선정해 28일 보



건소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진주고 2018 마중물 과학교실 운영

진주고는 지난 5월 26일 토요일 봉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8 마중물 과학교실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마중물 과학교실이란 진주고의 5개 수리, 과학 동아리가(BBC, JYP, Vital, NOVA, 수협) 연합하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 및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과학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진주고의 대표적인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

삼현여고 제1회 남명정신 선양 경남 토론대회 최우수

선비정신의 뿌리인 남명선생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제1회 경남지역 고등학생 토론대회가 지난 5월 26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진주문화사랑모임이 주관하여 '이 시대 청소년들 단성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학생들은 "나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금의 부름을 사양하고 벼슬을 하지 않은 남명

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주제로 퍼블릭포럼 디베이트(3대3 우리말 토론)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경해여고 대아고 덕산고 동명고 명신고 삼현여고 진주여고 합천여고가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삼현여고가 최우수상을, 대아고가 우수상, 덕산고와 명신고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남과학고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상 휩쓸어

경남과학고등학교(교장 한철우)는 지난 5월25일에 개최된 제40회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전해 금상 12명, 은상 8명, 동상 10명 등 총 30명의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오는 7월 26일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6명이 출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발명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197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생활과학 I, 생활과학 II, 학습용품, 과학연구, 자원재활용 5개 부문으로 나뉘어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명여고 전승으로 전국중별선수권 우승

여고부 선명여고가 4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선명여고는 5일 고성 거진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73회 전국남녀중별배구선수권대회' 중앙여고와 여고부 마지막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선명여고는 총 다섯 개 학교가 참가해 풀리그전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4전 전승을 달성, 우승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우승으로 선명여고는 오는 8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18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선수권' 참가권을 받았다.

진주기공 2년 연속 'LH one&one' 멘토링 지원 학교 선정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기백)가 2년 연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사업처장 방정민)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희망나눔 LH one&one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이는 취업 및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업고등학교 건설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1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및 진로 정보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진주기계공고 건설과 학생 60여명은 LH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주기적인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시공사, 설계사, 공기업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공 현장을 견학하는 진로 직업체험 활동을 하며 취업 및 진로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아고 '인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1차 탐방

대아고등학교는 지난 5월 26일 토요일에 2018학년도 '인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1차 탐방을 다녀왔다. 김병훈 선생님, 이여진 선생님의 인솔 하에 2학년 배재경 학생 외 1, 2학년 35명의 학생들과 산청의 덕천서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산천재, 남명기념관 등 청림유적지를 탐방하며 '남명 소식'선생과 다른 여러 선비들의 발자취를 공부하고 한국의 선비 문화를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동명고 녀던길 동아리 도보답사

진주동명고 학생들로 구성된 녀던길 동아리 학생들이 5월26일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매년 실시하는 경남 지역의 답사를 통한 지역사랑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일환으로 실시됐다. 올해는 한산도를 방문하여 망산 등반 및 제승당을 둘러보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시간을 보냈다.

제일여고 Wee 클래스 감사합니DAY 행사

진주제일여고에서는 5월 11일, 2018 Wee 클래스 감사합니DAY 행사를 가졌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에 가졌던 미안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맘을 포스트 잇에 담아 표현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자는 목적에서 기획되었고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집] 청소년 참정권을 허하라

6월13일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경남
교육감
후보의
공약
비교



후보	김선유	박성호	박종훈	이효환
경력	전 진주교대 총장	전 창원대 총장	현 경상남도 교육감	전 창원제일고 교장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고등학교까지 확대	고등학교까지 확대	고등학교까지 확대
창원국제 학교설립	신중히 검토	찬성	반대	찬성
학생인권 조례	반대	반대	찬성	반대
교사 관련	-교사 업무부담 줄일 것 -부수업무제로연구학교 시범도입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무행정사 1명씩 배치	-교권보호지원팀, 교원책임배상보험제, 교직원힐링센터 설립.	-교사 맞춤형 연수, 교사 학습연구년제도 확대
대표공약	유치원 무상교육	마산·진해교육지원청 설치	미래 교육 테마파크 조성	창원 김계·무동지구 교교 신설
학생 복지	-중고생 1학년 교복 구입 일정 지원	-중·고생 통학 시내버스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교복비 지원/ 초6, 중·고 2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초등 방과후, 중·고 교복비 및 체육복비 100% 지원/ 중학생 무상 글로벌 해외체험교육
안전	-스쿨존 이면도로 일방통행 -초등학교 1~2학년 워킹스쿨버스를 도입	-방사능과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재료 공급, 환경 조성	-학교 건물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구축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대처 매뉴얼 개발 -학교 CCTV를 확대 배치
기타	-유치원 간호사 배치 -경남교교사이버학교 운영 -경남학교급식연구원 설립	-학생 맞춤형 급식 실현, 누리과정 식사예절교육 시행	-학생 안전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학생 학교운영위 참여 보장,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희망사다리센터 고등학교' 설립, 진주 경남교육청 서부청사 설립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 출마한다면?

“마려울 때 화장실, 아플 때 조퇴”
“마려울 때 화장실을, 아플 때 조퇴를!”

기호 0번 교육감 후보인 ‘청소년’이 5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외쳤다. 그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추대한 ‘상징적인 후보’다. 연대는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학생·청소년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인데 청소년은 배제하고 어른들끼리 선택한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며 청소년들이 바라는 공약을 직접 알리기 위한 이날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새하얀 가면을 쓴 청소년 후보는 먼저 “학생들에게 인권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사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드러내고, “쉬는 시간에 뒤통스냐”는 타박을 들으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

겠다는 것이다. “아프거나 필요할 때 조퇴할 권리가 없다면 학교는 일정 시간 동안 가둬두는 감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줄줄이 공약으로 이어졌다. 모든 학교에 학생 전용 휴게 공간과 탈의실을 만든다. 교사의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고, 폭력을 쓴 교사는 반드시 징계한다. 학생이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갑질’을 뿌리 뽑아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앞장선다. 더이상 학생이 교무실 청소와 교사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생도 교직원과 똑같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쓸 수 있게 한다.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빌미로 학생을 겁주는 일도 없앤다.



갑질 뿐 아니라 ‘차별’도 없어야 한다. 학생이 나이, 성별, 성적, 장애, 질병, 인종, 출신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학칙과 관행을 고치고 인권교육을 한다.

참정권은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한 기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둔다. 하지만 인간의 성숙은 개인의 경험과 성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의 기준인 ‘만 19세’를 전후로 인간의 미성숙과 성숙을 결정짓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한발 양보하여 청소년 집단이 비청소년 집단보다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낮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더라도 청소년 집단의 ‘상대적 미성숙’은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노화를 근거로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직 훨씬 개선

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적장애인에게도 거소투표(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같은 여러 보완책이 하여금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제도의 바탕에는 참정권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참정의 권리를 성숙과 미성숙의 잣대를 들어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는 특정 연령대의 법적 남성만이 가진다)와 부가가치세를 통한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므로, 의무에 앞서는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다. 행복추구권 중 일부인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듯이, 참정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은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본권은 의무에 앞서며, 나이를 가리지도 않는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다. 청소년이 스스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여길 때 더 많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며,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된다. 18



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시작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우리의 행복추구를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참정권 논쟁이 ‘잠시 핫한 이슈’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이여! 우리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함께 외치자!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에 달도록 더 크게 소리치자!

[필통편집국]

[현장취재] 진주교육 이그나이트 대토론회

'진주교육 나도 할 말 있다' 열렸다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140여명 참석

진주행복교육지구연구회는 5월 25일 진주교육사랑방, 꿈꾸는 청년학교 밥꿈 등과 함께 '진주교육 나도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40여 명이 넘는 진주시민이 참여해 진주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학생, 교사, 교육청 장학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진주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2부에서 청중 가운데 일부가 플로어 발언을 신청해 진주교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

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8명의 발표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중고교 학생의 발표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표자 임수중 씨(진주고 학생)는 이날 꿈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과 경험을 우리 교육이 보장해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 진주고 임수중 학생〉



〈발표자 사대부중 문주영 학생〉



그는 “학교나 어른들로부터 꿈을 강요받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학교는 진로를 정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라는데, 인생을 하루에 비하면 고등학생은 새벽5시를 사는 것”이라며 “새벽5시에 하루를 모두 계획할 순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게 비정상은 아니”라며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한 더 충분한 시간과 삶의 경험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대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학생 문주영 씨는 학생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전형적인 책바퀴 인생을 살고 있는 학생이라 밝히고 지금

학생들의 삶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행복도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며 “3월에 학교에 입학해 중간고사를 처음 치르고 난 뒤 가장 와 닿는 두 글자가 ‘경쟁’이었다. 적당한 경쟁은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치열하고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에 따르면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도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8시간 공부한다고 한다. 자유시간은 3시간 미만이다. 무언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유쾌하게 말하는 '청소년기 성생활'

토크쇼 '청소년, 섹스를 말하다' 현장을 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5월12일 진주 평거동 아이쿱 자연드림에서 '청소년, 섹스를 말하다'는 주제의 토크쇼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며 날 것 그대로의 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토크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의 삼사(닉네임)와 이기(닉네임), 창원지부의 손(닉네임)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 이후에는 청중과 발제자 간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성은 모두에게 삶이며 일상이다"

닉네임 삼사는 '자기위로'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삼사는 먼저 자위행위를 좋아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걸 말할 수 없었던 건 청소년의 자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위가 좋다. 애인이 없어 외로워서, 성적 쾌락에 중독돼 그런 것이 아니라 성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자위를 즐기고 좋아한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자위를 해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밝힐 수 없었던 건 사람들에게서 듣게 될 말과 거기서 올 수치심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의 자위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했다.



삼사는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은 쾌락에 약하고 충동적이라고 대상화하는 건 모순적”이라며 “청소년을 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성 교육도 청소년의 성생활에 실제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비청소년을 넘어 성은 모두에게 삶이며 일상”이라고 강조하고 “왜 청소년에게만 당연한 삶의 한 모습이 억압이라는 장벽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섹스를 포르노로 배웠는데 실제 섹스는 상상과 많이 달랐다"

닉네임 손은 '파란만장, 섹스생활'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손은 청소년의 섹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인 상대방과 섹스를 하러 모텔에 갔더니 민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여기 출입하다 걸리면 학교와 부모님께 연락한다는 경고장이 붙어있었다”며 “내가 뭘 잘못해서 섹스를 못하나. 어떤 근거로 모텔 출입을 막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청소년인 친구의 경우 모델이든 자취하는 곳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섹스를 한다. 청소년인 나도 욕구가 있고 성생활이 있다. 안정적인 장소에서 섹스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성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화와 배려가 있는 성생활을 할 것을 청중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섹스를 포르노로 배웠는데 실제 섹스는 상상과 많이 달랐다. 포르노는 대부분 연기이고, 서로가 즐거

운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중요하다”며 “서로의 니즈(needs)에 대해 대화하다보면 기존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여성은 걸레가 된다"

닉네임 이기는 '왜 우리는 감추거나 공격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자신을 섹스토이로 모으는 걸 좋아하고, 5살부터 자위를 해온 '프로 자위러'라고 소개한 이기는 자신의 성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성을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섹스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라며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다르지 않다. 단지 사회의 시선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는 자신이 자위에 당당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히고 남성과 여성의 자위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기성세대의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나는 처녀가 아니지만 그것에 당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죄책감이거나 처녀가 아니라는 슬픔 때문은 아니다. 주위사람들이 이를 알게 됐을 때 나를 바라볼 눈초리와 언행들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은 오빠의 자위를 알게 되자 오빠의 침대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몰래 올려주었지만, 나의 자위를 알게 됐을 때는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며 오열했다”며 여성의 성에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

이기는 먼저 청소년 사이에서의 억압에 대해 “성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여성에게 학교 내 사회는 '걸레'라는 별명을 붙인



다”며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섹스를 말하는 것에 억압을 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년들 사이의 억압을 청소년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회 전반의 억압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게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청소년이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하지 않고 낙태의 두려움, 죄책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둔다”며 “그러다보니 섹스를 포르노를 통해 배우게 된다. 그릇된 관념이 자리 잡는다. 결국 청소년의 성과 섹스는 청소년조차도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와 청중들은 이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이후 '청소년, 순수함을 거부한다'라는 이름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단디뉴스 제공]

[19금 톡톡] 모두가 알아야 할 생리이야기

생리는 19금이 아니야 생리에 대한 무지를 부끄러워 해야해...



생리는 사실 19금이 아니다. 하지만 19금 인 것 마냥 무지한 우리. 생리, 생리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생소하다. 마음대로 꺼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매직이나 마법, 그날로 통용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또 남녀를 불문하고 생리에 대해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우리는 생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자리에서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평소에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 그리고 우리들의 몸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생리를 공부한다.

[등장인물 소개]

우어금니- 불편한 생리대 대신 탐폰을 사용하고 싶은 18세 여학생

우충치-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에 관심이 많은 18세 여학생

송곳니- 여동생, 여자 친구 등으로 생리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 18세 남학생

사랑니- 남중, 남고에 재학하며 형제자매로는 형밖에 없는 생리에 무지식한 18세 남학생

18세 동갑내기 남녀가 이야기하는 생리

우충치: 애들이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설문지에 '생리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다수가 '안다.' 라고 답을 했어. 사실 나는 내가 하는 입장이지만 왜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 왜 하는 걸까?

송곳니: 중학교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착상을 위해서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면서 일부로 넓히고 만약 정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내벽을 허물면서 나오는 것들을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어.

우어금니: 너 정말 잘 배웠구나!

사랑니: ...

우충치: 나는 중학교 수학여행 때도 그랬고 이번 수학여행도 내 생리주기와 겹쳐버렸어. 정말 짜증내!

우어금니: 아, 어떡해. 정말 화나겠다.

사랑니: 혹시 그게 왜 짜증나는 거야?

우어금니: 여행 때 생리를 하면 관리가 귀찮고 힘들거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허리와 배가 요동을 치는 것처럼 아파.

송곳니: 맞아... 힘들어 보이더라.

우충치: 신경 쓸 것도 많아. 대부분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면 밝은 계열의 하의는 꿈도 못 꾸고 짐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ㅠㅠ

우어금니: 근데 생리주기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우충치: 아 맞아, 내 친구들도 워터파크에 놀러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피임약을 먹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건 부작용이 있다던데..

송곳니, 사랑니: 어떤 부작용인데?

우어금니: 여드름이 나거나, 두통, 매스꺼움, 그리고 구토증상 등이 있는데 물론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먹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그건 그렇고, 왜 애들이 생리대를 숨기고 다니는 걸까?

우충치: 나 여중 다닐 때는 그냥 손에 들고 다녔는데 남녀공학 오니까 나도 모르게 숨기게 되더라고.

우어금니: 왜?

우충치: 모르겠어, 그냥 시선도 약간 신경 쓰이고.. 랑니야, 곳니야, 너희는 만약 너네 눈에 생리대가 보이면 어떨 것 같아?

송곳니: 음.. 나는 아무 생각 안 들것 같은데?

사랑니: 나도, 내가 생리에 무지식 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우충치: 아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해외에서는 탐폰을 많이 쓰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생리대를 더 많이 쓸까?

송곳니: 사회적으로 보급이 잘 안됐기 때문이 아닐까? 나오긴 했지만 소개가 잘되지는 않았잖아. 교과서에만 있고.

사랑니: 맞아, 난 실제로 탐폰을 본 적도 없어.

우어금니: 사회적 시선 때문인가?

우충치: 만약 그렇다면 그걸 왜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걸까?

우어금니: 사람들이 질 안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에 약간의 오해가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

사랑니, 송곳니: (끄덕끄덕)

속닥속닥 여자들의 이야기

chapter.1

우충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왜 숨기고 다니지?

우어금니: 맞아. 당연한 건데..

우충치: 그냥 진짜 무의식 인가봐. 남학생들도 다 이해해줄 것 같은데 괜히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

우어금니: 나는 내가 생리대를 들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본 남학생들이 '아 재는 생리대를 갈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럽고 싫을 것 같아.

우충치: 나는 싫다 라기 보다는 혹시 물어볼까봐. 그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

우어금니: 아 모르겠다... 생리대 숨기고 다니지 말자!! 숨길 이유가 없는걸.

chapter.2

우어금니: 생리혈도 냄새가 있나?

우충치: 있지. 아무래도 피를 생리대에 오랜 시간동안 차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예민한 남성들은 그 냄새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우어금니: 헐... 근데 만약에 냄새 나면 동성끼리는 말이라도 해주지 이성끼리는 약간 말해주기 서로 좀 그렇겠다.

우충치: 맞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리대를 제때제때 갈아주는 습관을 기르는 거야. 건강에도 안 좋으니깐 말아야. 그리고 생리 전

후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질염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지. 질염은 여자들의 감기와 같은 것이니깐 발병 될 가능성도 배제해 버릴 수가 없거든.

우어금니: 맞아. 좋은 정보 고미워.

chapter.3

우어금니: 난 꼭 탐폰 써야지.

우충치: 너는 탐폰을 쓰고 싶은 이유가 뭐야?

우어금니: 그게 일단 엄청 편하대. 잘 사용하면 이질감도 없고 양에 따라 4~8시간에 한 번 정도 갈면 되는 거라서 생리대보다 훨씬 편하대더라고.

우충치: 우와, 혹시 그럼 생리컵은 어때?

우어금니: 나는 생리컵도 써보고 싶어. 하지만 대중화가 안 된 한국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어. 공공장소에서 씻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우충치: 가져가서 세면대에서 씻기도 좀 피해주는 것 같고... 화장실에 개별 호스를 두면 괜찮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행구는 거... 괜찮지 않아?

우어금니: 대중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리컵을 사용해서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통이 완화된 사람이 꽤 있대. 진짜 써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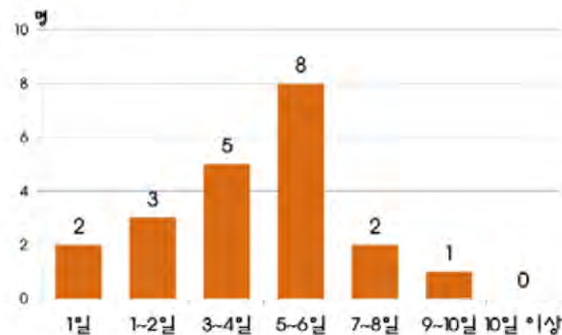
우충치: 나는 생리대의 불편함은 잘 못 느끼겠는데..

우어금니: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 생리혈의 질척한 느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느낌이 불쾌해. 탐폰을 쓰면 엄청 깔끔하고, 뽕-뽕-!ㅋㅋㅋ

우충치: 뽕-뽕-!ㅋㅋㅋ

진주고등학교 남학생(21명)에게 물었습니다.

1. 생리는 한 달에 몇일 한다?



그 날'이라는 단어 때문인 걸까? 생리는 하루만 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생리기간은 개인에 따라 보통 3~7일 정도 계속된다.

2. 생리를 하는 이유 3. 생리 주기 때 나타 나는 증상을 안다? 4. 생리대 가격을 안 정확히 안다? 나는 증상을 안다? 다?



5. 생리 중에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생리기간중 섹스는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편견이 많다. 하지만 여성이 생리중일 때 섹스를 하면 안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물론 위생처리나 감염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만 섹스가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6. 생리는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다?

의외로 생리혈은 소변처럼 원 할 때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남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생리혈은 여성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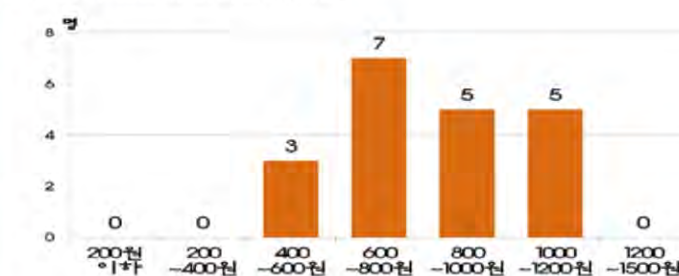
7. 생리 주기는 어떻게 될까?

보기	답변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이다	8
1~2달 사이에 주기적으로 한다	6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4
불규칙적으로 진행된다	2
주기적이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8. 생리대를 쓰는 방법을 안다?

사실 여성들도 처음 생리를 시작할 때 생리대를 어디다 붙여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곤 한다. 정확하게 생리대는 팬티에 붙여 사용하며 생리대 옆에 붙은 날개는 고정력과 흡수력을 높여준다.

9. 일반적 생리대 하나의 가격은?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 이다은(진주제일여고2)기자]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레시피를 검증하다

오지치즈후라이, 떡볶이리조또를 만들어 봤어요

편의점은 정말 어디든지 있다. 또 편의점을 가보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과 편의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편의점이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단순히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이제 끼니까지 해결하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요즘 편의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이 들어차 있다. 간식, 햄버거, 도시락은 기본이고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 학생들을 유혹한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이런 많은 음식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메뉴를 탄생시킨다. ‘마크 정식’ ‘편의점 레시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SNS에 떠돌아다니는 음식 조합들을 직접 시도해보자니 실패할까봐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통기자들이 편의점 레시피들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오지치즈후라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딱 어울리는 오지치즈후라이를 편의점레시피로 그대로 그 맛을 재연해 본다.

준비물 : 오!감자, 포카칩, 슬라이스 치즈, 모짜렐라 치즈, 스프링 치즈

가격 : 오감자 1200원/ 포카칩 1500원/ 스프링치즈 1300원/ 슬라이스치즈 1950원/ 모짜렐라치즈 1000원/ 총합 6950원



따라해보세요~

1. 오 감자와 포카칩을 접시에 담는다. 먹고 싶은 양 만큼 해도 상관없다.
2. 슬라이스 치즈를 일자로 자른다. 크기는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된다.



3. 과자위에 잘랐던 슬라이스 치즈를 올린다. 양은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넣어도 된다.



4. 슬라이스 위에 스프링 치즈를 잘라 올린다.



5.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뿌린다.



6. 전자레인지에 40초가량 돌린 뒤 꺼내면 고퀄리티~ 오지치즈후라이 완성!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된다. 느끼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나 느끼한 것을 혐오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치즈를 덜어내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 취향대로 소스를 곁들이면 더 좋다.

※꿀팁 : 기호에 따라 햄Or 베이컨도 같이 넣어주면 더욱 더 맛있다.



〈시식후기〉
전체적으로 고소한 치즈 냄새가 진하게 나며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오! 감자와 포카칩이 치즈와 함께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맛있었다. 또 만드는 과정도 생각 밖으로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해서 먹기도 좋을 것 같다. 다만 과자가 좀 눅눅해져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지만 맛은 느끼하지 않으며 맛있었다. 간식용으로도 괜찮고 어른들에게 맥주를 부르는 맛이라고...

별점 평가 ★★★★★★★★★★☆☆

떡볶이 리조또

리소토(risotto)는 쌀을 버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뒤 육수를 붓고 채소, 향신료, 고기, 해산물 등의 부재료를 넣고 함께 졸여낸 부드러운 식감의 이탈리아 쌀요리이다. 이 이탈리아식 볶음밥을 완전 한국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넣고 대표적인 편의점 레시피인 떡볶이 리조또로 새롭게 탄생시켜 보자.

준비물 : 편의점 떡볶이, 삼각김밥, 모짜렐라 치즈

가격 : 편의점 떡볶이 2000원/ 삼각김밥 1300원/ 모짜렐라 치즈 1000원/ 총합 : 4300원



따라해보세요~

1. 떡과 소스를 넣고 기준선까지 물을 붓는다. 떡볶이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면된다. 원래 먹듯이 레시피 대로 물을 넣어서 만든다!
2. 떡볶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4분정도 돌린다.



3. 삼각김밥을 떡볶이에 넣고 비빈다. 삼각김밥을 좋아한다면 두 개를 넣어도 된다. 삼각김밥은 안에 들은 양념이 별로 세지 않은 주먹밥을 추천! 피자치즈는 편의점에서 한번 먹을 분량을 천원씩 정도에도 판다.



4. 떡볶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는다. 피자치즈를 넣고 스트링 치즈를 찢어서 짹짹 올려주면 더 좋다. 치즈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굵!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은 우유를 조금 넣어도 된다.



5. 다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린다. 떡이 딱딱할 수도 있으니 먹어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6. 그냥~ 맛있게 먹는다. 맛은 즉석떡볶이에 밥 볶아먹는 맛인데 삼각김밥을 감싸고 있던 김을 잘게 찢어서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든든한 끼 식사로 딱 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밤 영화 볼 때 야식으로 간단하게 떡볶이 리조또, 어떨까?



〈시식후기〉
그냥 드는 느낌은 맛있다는 것. 떡볶이도 먹으면서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거기가 치즈까지 있으니 최고다. 삼각김밥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먹고 싶은 맛의 삼각김밥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재료도 함께 넣어도 좋을 것 같다.

별점 평가 ★★★★★★★★★★☆☆

[맏칸년맏반] 동명고등학교 2학년 4반편

동명고 독일어 최강! 우리반 자랑 좀 합시다!

동명고에서 독일어를 가장 잘하는 반이며 남중일색한 친구들이 뿔뿔한 반이다. 단합력 하나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동명의 센테! 2학년4반을 소개합니다!



우리반 담임샘 노종엽 선생님 독일어 과목을 담당하시는 인자한 미소를 가지신 선생님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가지지 못한 트렌디함을 가지고 계신다. 가끔 너무 고치원의 개그를 하셔서 웃음 포인트를 찾기 힘들지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리스크가 큰 투자일수록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예상한다. 무슨 의미냐구요? 해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쩌면 지금 힘들게 학교생활 하는 것. 인생에서 적지않은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나의 이상형 & 좋아하는 것

이름	나의 이상형은?	하고 싶은 말
1. 강동채	적당한 사랑	적당히 하자
2. 강태영	키 작은 여자	집에 가고 싶다
3. 권대현	딱히	심쿵 복숭아 맛있다
4. 김경민	귀여운 고양이상	밥 먹자 연락해라
5. 김성민	키 작고 볼살 많은 여자	마토는 맛있쨌~♥
6. 김승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7. 김은수	최유정	에어컨 온도는 22도가 적당 합니다
8. 김정빈	내 여자친구	은기 눈 좀 떠
9. 문경록	없다	없다
10. 박성우	대한독립군	여자 친구 유주♥
11. 박원준	운명적인 사랑	짝사랑은 이제 그만~
12. 박정현	애교 있는 여자	피파4
13. 변승민	트와이스 다현	공부해라
14. 손은기	없다	사랑을 했다
15. 송명근	키 큰 여자	좀 잘하자
16. 송호승	정소민	Ed sheeran-happier
17. 심하윤	일단 사람	wakanda forever
18. 우승우	박보영	은수야 에어컨 온도는 18도가 적당해
19. 유원경	웃을 때 귀여운 여자	동채 타올 8분
20. 정대현	나 좋아해 주는 여자	내 목표는 탈 동명
21. 정민규	햄버거 잘 먹는 여자	자유시장 롯데리아 알바생
22. 정병권	여자	010-5771-2039
23. 정승민	단발이 어울리는 여자	키 크고 싶다
24. 정은기	눈작은남자귀여워해주는여자	마토는 맛있쨌~
25. 정정식	를 좋아하는 여자	챌린저 가고 싶다!!
26. 정창훈	귀엽고 착한여자	상대동 엔틱 3층
27. 조유재	콧구멍 작은 여자	아잉~♥
28. 최한석	귀엽고 애교가 많은 여자	다들 행복하게 살자
29. 한지민	좋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30. 황민선	내가 좋아한다면	난 참 착한 것 같다.
31. 이재서	머리 긴 여자	배구부 화이팅
32. 최명호	귀여운 여자	화이팅~!르르



박원준: 자칭 배우신분이며 승부차기를 잘한다. 매우 남자다운 성격을 지니고 있고 큰 키에 웃음이 정말 좋아 지민이가 좋아하는 친구이다. 웃음이 좋은 만큼 웃도 잘 입고 얼굴 또한 매력 있게 생겼으며 요즘은 공부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아 실물로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정대현: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이 2세대이다. 방탄소년단 팬답게 안무를 모두 외우고 있으며, 노래 가사도 전부 알고 있다. 몰래 휴대폰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면 역시나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고 있다. 굿즈도 엄청나게 많은 남팬이다. 요즘 신곡이 나와 행복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아니다.

동명을 대표하는 멋진 친구들!



우승우: 볼테안경이 트레이드마크인 친구이다. 생긴건 북극곰처럼 생겨서 처음 알게 될 때 성격은 소심한 편이지만 친해지고 나면 말을 재밌게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친구이다. 야자시간에 먹을 것을 가져오면 항상 쳐다보며 "하나만"을 외친다. 생각보다 책을 되게 많이 읽는 문학 소년이다.



강태영: 우리반 미래지망생! 짝짝 뺨은 팔 다리에 매력있는 얼굴형의 소두를 가지고 있어서 모델 느낌이 났다. 뭔가 간간하고 신비주의일 것 같지만 허당이고, 장난을 하면 반응을 잘해줘서 우리반 동네북이다. 조유재라는 친구와 둘도 없는 단짝이다.



김성민: 별명 토마토 많은 친구들이 어릴적부터 빨간 얼굴이 특징이라서 마토라고 불렀고 너무 이름보다 별명이 유명해져 몇몇 친구들은 성민의 이름을 모른다. 항상 배게리던가 담요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친구이다. 생각보다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복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권대현: 잠이 많은 친구이다.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고, 순진하고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축구할 때만큼은 정말 엄하다. 그래도 끝나면 항상 자기 성격대로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준다. 게임을 굉장히 잘해서 인기가 많다. 얼굴은 성격과 맞춘 것처럼 정말 귀여운 친구이다. 장점은 진짜 착하다는 점이다.



정민규: 필통 현직자이며 우리반에서 잠자는 것과 지각할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롯데리아 알바생이다. 운동 유단자이지만 태영이 다음으로 동네북이다. 사진작가가 꿈이라서 우리반 사진촬영 담당이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를 갖추고 있고, 사교성이 좋아서 선생님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



최한석: 체대지망생이며 우리 학교 체육차장이다. 어릴적부터 체육을 좋아하며 체육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적절하다. 운동으로 다부진 근육이 장점인 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씨름 신수를 계속 하던 친구라서 우리학교에서 가장 씨름을 잘한다. 씨름하는 모습을 본다면 바로 반하게 된다. 작년 체육대회 때 씨름으로 동명고 전설로 남아있다. 어깨가 태평양이라 듬직하다.



정은기: 겉보기는 큰 키와 거대한 몸집이 무서워 보이지만 성격이 웃음이 많고 소심한 면이 있어서 푸근한 친구이다. 정말 착하고 은근 매력남이다. 장점은 역시 큰 키이고 우리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급식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급식중 멤버에 속한다. 보검을 좋아하는 가조쿠이다.



유원경: 어리버리 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똑바로 순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 외모 덕으로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을 받는 친구이다. 한번씩 너무 순진해서 드립을 잘 못 받아쳐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줄여서 갑분싸 친구이다. 성격이 폭발해서 2학기때 반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요즘 인기를 몰아하고 있는 고등래퍼 윤진영을 정말 닮았다.



김경민: 진짜 잘생긴 친구이다. 이 친구로 말하자면 우리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동명컵(동명 월드컵)의 우리형이다. 180을 가뿐히 넘기는 큰 키와 작은 얼굴로 여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얼굴이 굉장히 남자답다. 멋있다 라는 말이 적합한 친구이다. 하지만 그런 피지컬 뒤에 순박하고 허당기 있는 모습이 반전 구조를 이룬다.



조유재: 우리반에서 외모 32등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무서운 외모와는 다르게 어리버리하고 순진하다. 목소리가 커서 친구들을 가끔 놀라게 하며 태영이를 갈구는 주된 인물이다. 우유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유 던지기를 마스터했다. 가끔 입는 철부 바지가 트레이드마크이다. 패션으로 우리반 친구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다.

[취재/정리: 정민규(동명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삼현여고 2학년 8반편

그런 멋진 반 또 없습니다.

저희 반은 25명으로 다른 반보다 적은 인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반의 단합력 덕분에 전혀 인원이 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 반의 목표는 하나로 뭉쳐서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한번 뿐인 고등학교 2학년, 청춘의 추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반은 공부, 랩, 춤, 운동, 인성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늘 열심히 하고 또 완벽한 생활태도로 학생회에 지적받은 일도 드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담임선생님, 좋은 분위기와 우수한 생활태도 그리고 뛰어난 재능까지 아우르는 반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팔반 기염둥이들 남은 일년 옴뇽뇽하자 약간 사랑해♡"



우리 담임선생님, 정영호 선생님
O...NLY☆ 수학 가족 요리 그리고 2학년 8반.....
☆ 밖에 없는 수학 담당 정영호 선생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감이 넘치시지만 알고보면 가정적인 딸 바보. 우리 담임 선생님이자 존제레 아버지시다.

나의 이상형& 하고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 강수정	섹시한 스파이더맨	집 가서 자고 싶다
2 강희영	키 크고 덩치 큰 '곰' 같은 사람!	8반♡
3 고안나	미즈구치 유토	오늘 야자안함 ㅋ
4 김가현	키 크고 운동하고 가라마 펴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집에 가고싶다
5 김도아	그냥 좋은 사람	사랑해♡
6 김민진	180 이상에다 안경 잘 어울리고, 코0높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제훈)	영화 '사랑의 시간' 하나까 봐~ㅎ<꼭봐>
7 김보금	키 크고 나만 봐주고 노래 잘 부르고 목소리 좋은 사람	놀러가고 싶다
8 김은정	키 180은 기본 내키는 154.8 이병재같은 사람 달달 스위트 오우에~	슈퍼 루키 부산권 꼭 간다
9 김지혜	키 크고 목소리 좋은 사람 ♡	아이 렵 구운 계란 ♡
10 문혜림	눈은 속쌍~ 키는 나랑 20cm차이인 186, 어깨는 나보다 넓고 목소리 좋고 성격 좋은 사람	내 취미는 발가락 빨기야ㅎ
11 박정현	매력 있고 재밌는 사람	스티치 ♡
12 배나영	키 크고 성격 양세형 ♡	난 트와이스 제 10의 멤버가 될꼬얌<
13 백재은	재밋고 웃긴 사람, 잘생긴 사람(유승호) ♡	물 한입만 주겠니? (by만세)
14 백정혜	비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정일훈 (she' s gone) 개당곡
15 서예진	말 많고 재밌는 사람. 키 170만 넘어도 괜찮	정혜야 제발 씻고 와
16 송정화	키 185이상 김용국 같은 사람	김용국 사랑해
17 옥주희	기댈 수 있는 든직한 사람	삼현축제 놀러오세요~
18 윤태희	키 크고 비율 좋은(185이상, 나 170)비글미 넘치고, 재미있는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수정구슬처럼 미세먼지 정화된 시윤나라의 민서왕자와 소현 공주~ 인스타 y.clalal 놀러오세용
19 이민서	목소리 좋고 냄새 좋은 문성민 같은 배구선수	조유진 사랑해
20 이소현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	도야야 공차언제가?
21 이진선	토레타	농협 이진선 302-0613-0623-51
22 이현서	x	8반♡
23 임나윤	덩치 있고 키 큰 매력 있는사람	8반♡
24 조유진	키 크고 어깨 넓고 웃 잘 입고 노래 잘 부르고 잘생긴 남자	저 멋있쥬
25 하시윤	앞머리로 눈까지 덮는데 그때 웃을 때 치아가 14개 이상 드러나는 사람(빈첸)	용태용태 데려갈 사람 구해용~~

이런 친구들 또 없쥬^^



윤태희:우리반 최장신. (미녀?) 이진선을 뒤이어 웃음소리가 쾌활한데 돌이 찍지라 같이 웃으면 반이 난리난다. 약간 조용해서 보면 자고 있다.



강희영:공대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미래에 공대 여신이 될지도 모른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산다.



이민서:민등 학생회 체육부 차장이다. 비행기 타고 배구 경기를 보러 다닐만큼 배구를 좋아한다. (대한항공 우승 가즈아) 민사



서예진:우리반 영어퀴즈 점수 길러를 담당한다. 긴 문장도 끄떡없이 잘 외운다. 약간 선생님의 뇌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혜림:항상 졸려 보이는 표정을 짓고 다니지만 뽕순이를 달아 귀엽다. 카톡 답이 느려 남자 만나기는 글렀다. 중앙고 민주야 진양고 지영아 사랑해 ♡



김은정:감쪽같은 우리반 부반장. 아담한 키와 귀여운 목소리 때문에 사랑스러워 깨물어 주고 싶다. 한국사 우병로 선생님 1호 팬이다.



백정혜:뽕 때 타조를 닮은 우리반 총무. 군것질을 엄청 좋아하고 특히 웰치스 포도맛을 자주 먹는다. (살이 안 썰) 가끔 빙구로 변해 이상한 짓을 한다.



송정화:시비 거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로 쾌락을 느낀다고 한다. 교지 편집부 부장이며 글을 잘 쓴다. 2번째로 큰 키를 소유하고 있다. (김용국 덕후)



하시윤:일본이름은 나가사끼 모도로 오사카 출신.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블랙핑크를 제친 삼현 웨이브 원탑 (백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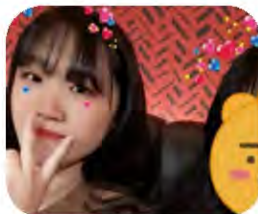
강수정:타칭 줄리엣 강 우병로미오는 하 이다. 웃음소리가 기개로 잔 듯 일정하며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가져 얼 굴로 말한다. 하지만 확통을 사랑한다.



이소현:고성 공룡 엑스포 캐릭터 오니와 배우 박진주를 가 기계로 잔 듯 일정하며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가져 얼 굴로 말한다. 하지만 확통을 사랑한다.



김도아:우리반 대표 아기피부 소유자. 매일 급식을 거르고 싸운 당근을 먹는 황제평권이 다. 수업시간마다 뭘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야



배나영: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우리반 힙스타. 트와이스 제10의 멤버로 합류 준비 중이다. 수학을 잘하지만 수학시간에 매번 조용히 잠든다.



옥주희:패디 '엘르' 부장으로 완벽한 몸매를 가졌다. 특히 눈웃음이 킬링포인트. 매우 외로워하고 있다. 연락주세요 애 피크닉 조항해요



이진선:야무지고 뽕부러진 우리반 반장. 웃음소리가 쾌활하며 가끔씩 미치면 소리를 지른다. 감당이 되지 않지만 불쌍해서 봐준다. 토레타 조항



김가현:페복스타 김유이 닮은 꼴이다. 목소리가 매우 높고 시끄럽다. 본인이 귀엽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귀엽다.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 조항



고안나:대화할 때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상대방 발음을 탓하거나 그냥 알아들은 척 한다. 아 그리고 안나의 일기 아 니고 안네의 일기라고 한다. 로직 조항



박정현:카카오 프렌즈 콘과 모하게 닮았지만 스티치를 좋아한다. 머리를 묶으면 시크하고 머리를 풀면 귀여워지는 특별한 반전 매력을 소유하고 있다.



김민진:피글렛을 닮은 덕분에 탄핵위기를 극복한 우리반 중국어 반장. 말을 못하지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한다. 배우 이제훈의 팬이기도 하다.



백재은:매일 아침 구운 계란 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반 힘썰이.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냥 키 작지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



김지혜:파파 스머프와 서울쥐를 닮아 귀여운 외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이어트를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쉴 틈 없이 꾸준히 계속 다량 섭취한다.

[동네투어] 가호동 청소년 핫플레이스

가호동에서 놀만한 곳? 필통만 믿어보!

이번 동네투어는 기자단 중 단연 최고의 재미를 자랑하는 기자 둘이서 가호동을 갔다. 역시 대학이 있는 변화가라서 발길 닿는 곳마다 1순위 먹거리, 2순위 놀거리로 가득했다. 수많은 정쟁한 가게들을 스캔하며 최,케(최고의 재미)가 발로 뛰어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핫플레이스를 선정했다. 자, 이제 필통기자가 엄선한 핫플레이스를 둘러보자!

올로(파스타 전문점)

배가 고프다면 올로와!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파스타와 필라프가 맛깔나게 조리되어 나온다. 프랜차이즈 파스타 전문점 사이에서도 굳건히 입지를 지키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고 한다. 방 안에 테이블과 문이 있어 사적인 담소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다. 사진의 메뉴상 가격으로 빠르게 스파게티(11,900)+필라프(9,900)+콘샐러드(900) 2인기준 더치페이했을 때, 인당 약 12,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양과 맛을 보면 '가성비가 내려와~~~~'라는 노래가 절로 나온다.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12 2층



가좌동 공원

밥도 다 먹었는데 소화도 시켜야 겠고... 커피는 테이크아웃 했는데 어디서 마시지 싶다면? 가좌동 공원이 있다. 변화가와 근접해 있는 공원으로 이곳은 운동과 산책 등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배는 부르고 갈넌 없고 카페는 답답하다고 생각될 땐 커피한잔 딱 테이크아웃해서 앉아 있으면 세상만사 피로까지 아니더라도 시원한 바람 덕분에 잠시 몰려온 졸음은 피할 수 있다! 또한 놀이터와 운동기구가 있어 장시간 앉아있는 학생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



와플 칸(디저트카페)

마카롱 집은 달렸고... 단건 먹고 싶고... 케이크는 비싸다고 생각될 땐? 와플 칸이라는 디저트카페가 반긴다. 진주에 딱 두 군데 있다. 버거킹만큼 화기만 켜졌다. 와플을 주문하면 즉석에서 와플을 구운 후 메뉴에 맞는 재료를 넣어 손님에게 제공한다. 김기자는 정말 아이스크림 와플을 먹고 싶어 했지만 엄격자의 만류로 초코퐁당을 먹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역시 최! 입맛까지 알아주는 센스! 초코(2500)+초코퐁당(2500) 마카롱보다 더 크고 가격은 비슷하고, 역시 학생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진주시 진주대로 518 yzon빌딩 1층



블루리본 컵케익

나만 알고 싶은 타르트가 완전 맛있는 카페 블루리본 카페. 분위기가 좋고 인테리어 감각도 뛰어난 예쁜 카페를 찾고 싶다면 추천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대를 놓은 좌석이 있는데, 그렇게 폭신하진 않지만 수면 욕구를 자극한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 비결은 타르트의 맛과 카페가 안쪽에 숨어 있어서 뭔가 나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느낌 때문이 아닐까? 진주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카페이다.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10-11



커피 품은 도서관(카페+도서관)

커피도 마시고 싶고 책도 읽고 싶다면? 이곳이 딱이다. 4시간에 4천원, 음료는 무제한. 추가 이용 한 시간 단위 천원, 자율외출가능. 어디 카페 못지 않다. 카페기도 도서관이기도 해서 시험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비밀 아닌 비밀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일찍 가거나 시험기간을 피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9-1

심심 풀이 땅콩

놀고 싶은데 이것저것 모두 다 하면서 놀고 싶다면??? 단연컨대 심심풀이 땅콩이다. 24시간 복합 놀이시설로 정말 다양한 놀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1시간에 2000원으로 가격도 합리적이다. 당구, 탁구,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보드게임, 노래방 시설, 만화등 심심할 틈이 없다. 먹거리 또한 판매하고 있어 출출할 때 끼니를 때울 수도 있다. 커튼이 달려있는 개인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오기에도 부담이 없으며 가족들과 함께 오기에도 부담이 없는 곳이다. 또한 만 원으로 하루종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으니 잘 보고 선택하면 시간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개가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으니 개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의할 것! ▷진주시 가좌안골길10번길 9 4층



G1 게임랜드(종합 게임랜드)

돈은 없고 노래는 부르고 싶고... 어디 갈만한 곳 없나? 노래방보다 오래방이줘. 무려 1000원에 6곡이나 부를 수 있다. 노래방보다 더 많이 싸게 부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오래방 뿐 아니라 게임랜드도 많은 놀거리도 있다. 펀치 기계도 켜~. 도전 욕구를 자극 시킨다. 신기록에 도전하면 더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한 번씩 꼭 가보길 바란다. ▷진주시 가좌안골길6번길 5



BM레이싱게임존

면허 없이 차 운전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레이싱 카페를 추천한다. 최신식 장비와 스피커가 귀의 양 옆에 있어 생생한 레이싱게임이 가능하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게임방법을 안내해주실 뿐더러 도움을 요청하면 게임조작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만약 처음 방문한다고 해도 어려움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30분에 1인당 3000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보면 어느새 1시간을 운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차의 떨림까지 의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엉덩이에 후유증이 올 수 있다. ▷진주시 진주대로 536 3층



킹콩 사격/야구장

게임랜드도 질려, 몸도 움직이고 싶은데 공원은 재미없고... 어디 갈까? 사격과 야구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가격대가 저렴하다. 사격의 경우에는 2000원을 넣으면 33발을 쏠 수 있고 야구는 1000원을 넣으면 15개의 공을 칠 수 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화 외에 진주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진주시민 미디어센터의 독립영화관 인 디씨네이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 영상제작과 제작지원, 독립영화 상영 등 여러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미디어 센터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독립영화를 상영한다.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경상대학교 정문 맞은편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를 타고 경상대학교 정류장에서 내리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진주시 진주대로 506-1 3층



엠비씨네

8관으로 1279석 이다. 엠비씨네는 개관당시부터 소리로 보는 영화관이라는 수식어를 홍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음향시설을 자랑했다. 이후에도 줄곧 음향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엠비씨네 관계자들은 음향이 중요한 영화는 엠비씨네에서 볼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주차시설이 나쁘지 않아 가족단위로 영화보기가 좋은 곳이다. MBC경남 사옥에 위치해 있다.



특별한 자전거도로



현재 진주시의 자전거도로는 전용 42.4km를 비롯 겸용 126.3km, 산악 8.26km 등 176.96km다. 그 중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경상대에서 주악동까지 가차 폐선로를 이용한 도로와 남강변 새버리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다. 친구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필통실험실] 불고기버거 4사 브랜드별 비교분석

깨가 없는 맥도날드? 햄버거 선호 1위 맘스터치?

청소년들에게 햄버거는 부담없는 시간과 가격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식사메뉴이다. 햄버거의 기원은 여러설이 있어 확인할 수 없지만 햄버거를 정식상품화 하고 패스트 푸드로 알려진 것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인 화이트 캐슬에서 1921년에서 부터였다. 흔히들 시작은 맥도날드로 알기 쉽지만 맥도날드는 햄버거의 패스트 푸드적 요소를 강화하여 전 세계로 퍼트린 것이다.

이런 햄버거가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온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음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던 중 1979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1984년 버거킹 1988년 맥도날드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햄버거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국내 현지화 과정에서 특별한 버거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바로 불고기버거이다. 1992년 롯데리아에서 처음 나온 불고기버거는 불고기 패티와 맛있는 소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88년 압구정에서 최초의 맥도날드가 영업을 시작하고 2018년 지금의 맥도날드가 될 때까지 햄버거들의 종류와 맛은 계속 진화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단짝인 감자튀김 역시도 차별화 되고 있다. 바야흐로 햄버거 춘추 전국시대! 이번 <필통 실험실>에서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의 불고기버거와 감자튀김들을 파헤쳐 보기로 하였다.



포장에서부터 차이



매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할 하게 될 경우 각 브랜드별 회사에서는 어떤 형태로 포장을 해 줄까?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는 비닐봉투에,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종이봉투에 넣어 포장해 주고 있었다.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기업이 환

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일부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롯데리아는 비닐포장 안에 또 작은 종이봉투 포장을 중복해 사용하고 있어 조금은 과하다고 느껴졌다.



맥도날드엔 깨가 없고 롯데리아가 칼로리, 나트륨 1등



항 목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햄버거 속 내용	빵, 깨, 양배추, 패티, 소스 2종류 (흰색, 갈색)	빵, 깨, 양배추, 패티, 피클, 소스 2종류 (노랑, 갈색)	빵, 양배추, 패티, 소스 2종류 (흰색, 짙은 갈색)	빵, 깨, 양배추, 패티, 양파, 소스 2종류 (흰색, 짙은 갈색)
패티 원산지	호주산	-	국내산(돼지)	-
영 양 분	칼로리	390kcal	322kcal	371kcal
	나트륨	713mg	524mg	699mg
	당	8g	3g	13g
햄버거 맛	익숙한 맛이다. 전체적으로 달다. 소스랑 패티의 맛이 강하다.	피클이 있어 새콤하다. 샌드위치를 먹는 느낌. 소스맛이 색다르다.	익숙한 맛이다. 소스향이 강하다. 채소가 무른 듯 하다.	소스맛이 강하다. 양파의 식감이 좋다. 패티를 구운향이 난다.
감 자 튀 김	상태	감자가 잘게 썰린 정형적인 모양이다.	감자가 두껍게 썰려있고, 케이준 소스로 양념 하였다.	감자가 잘게 썰린 정형적인 모양이다.
	맛	익숙한 맛이고 가장 짭 편이다.	짭편이다. 소스 때문에 더 자극적이다.	롯데리아와 비슷하지만 덜 짜다.



햄버거 속을 들여다 봤다. 불고기버거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였다. 특히 할만 한 점은 맘스터치 같은 경우 피클이 들어가고 색다른 노란 소스가 들어 있다. 또 버거킹은 양파를 썰어 넣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 했는데 맥도날드의 경우 유일하게 햄버거빵에 깨가 뿌려져 있지 않았다. 외관만으로 맥도날드는 깨의 존재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브랜드에서 제공 되어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햄버거의 영양분 함유량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 살펴야 할 칼로리 고나트륨 햄버거로는 롯데리아로 꼽혔다. 390Kcal, 713mg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청소년 햄버거 선호도?

선호도조사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득표수	1	13	6	9

요즘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무엇일까? 필통기자단 학생기자들과 J고등학교 학생 29명에게 물어 보았다. 결과는 맘스터치의 압승이었다. 제일 많이 알려지고 역사가 오래된 롯데리아의 저조한 선호도가 조금은 놀란다. 맘스터치에 이어 버거킹, 맥도날드 순이었다. 학생들은 익숙함 보다 특징 있고 개성 있는 맛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맥도날드가 가장 저렴, 롯데리아 케첩 2개



햄버거 가격은 단품으로 맥도날드가 26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맘스터치, 버거킹이 3000원, 롯데리아가 35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감자튀김 가격은 1500원~1700원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각 업체의 모든 불고기버거의 실제 중량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맘스터치의 불고기 버거의 중량이 가장 높게 나왔고 가장 적은 맥도날드보다 무려 38g이나 무거웠다. 특이할만한 것은 매장에 공식표기된 중량과 실제 중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맥도날드만 실제중량이 공식중량보다 적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감자튀김의 경우는 오히려 맥도날드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았다. 중량에선 가장 적은 롯데리아 보다 30g이 많았고 감자튀김 개수로는 제일 적었던 버거킹보다 무려 29개나 많았다. 감자튀김에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토마토 케첩의 경우 롯데리아만 유일하게 2개를 포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가 격	햄버거	3500원	3000원	2600원
	감자튀김	1500원	1700원	1600원
햄버거	공식중량	154g	155g	150g
	실제중량	160g	181g	143g
감자튀김	중량	79g	99g	109g
	갯수	39개	40개	59개
토마토케첩	2개	1개	1개	1개

매출액 순위 Top5			2016년 기준
(1위)	롯데리아(구.롯데리아)	9,489억	
(2위)	맥도날드	6,033억	
(3위)	비케이알(버거킹)	2,532억	
4위	맘스터치	2,019억	
5위	케이애플씨코리아 (구.엑스알에스코리아)	1,770억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으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사인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의 불고기버거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먹을 햄버거를 선택하겠지만 햄버거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고 또 다른 브랜드에 도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입맛에 맞는 패스트푸드만 찾지 말고 균형 있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

[취재/ 박병규(진주교1)기자]

체육대회 줄다리기 여고의 전설이 되다

안녕! 나는 진주 제일여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체육 대회를 했어. 체대의 흥미진진, 여고생의 숭부욕 뿜어 대는 종목이 있잖아. 바로 줄다리기.

난 뭐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어 줄다리기에 참여하게 되었지. 어느 순간 두꺼운 밧줄을 움켜쥐고 있었지. 딱히 힘은 좋은 편이 아니지만 강다구는 누구한테 뒤지진 않지. 팽팽한 줄을 잡고 조금씩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걸 느끼는 게임. 나름 되게 재밌었어.ㅋㅋ

난 백팀이었어. 첫 번째 게임에서 우리 팀이 이겨서 완전히 모두 흥분한 상태였던 말이야. 두 번째 게임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ㅋㅋ 승리의 짜릿함을 예상했어. 그렇게 두 번째 판 신호와 함께 줄다리가 시작됐어. 영차~ 영차~ 우리는 무엇이든 잡아 당겨버리겠다는 기세로 당기고 또 땡겼지.

잘 하고 있었어. 근데 아뿔싸 이게 웬일. 갑자기 일순간, 우리 팀이 전부다 넘어졌어. 모두들 황

당해 했지. 이게 웬일인가? 난 청팀에서 일부러 줄을 모두 놓은 줄 알았지. 몰래카메라가? 어쨌든 이겼다고 좋아하는 친구들, 황당해 하는 친구들... 땡졌지.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밧줄이 끊어졌다는 거야.ㅋㅋㅋ 사실을 확인한 우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우습기도 하고 다들 놀라워 했어. 학교 체대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고 나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줄이 끊어진 건 처음으로 목격 했으며 난리였어. 정말 여고생들의 숭부욕과 숨은 괴력이 만들어 낸 작품이었지.

우리 백팀이 이긴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줄을 묶어서 다시 한다고 했어. 순간, 우리는 다시 전투모드로 변신했지. 근데 보니까 줄이 제대로 묶이지도 않더라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줄이 서로 당겨지면서 쪼여져서 단단해질거라고 하셨지. 그럴 것 같았지. 그리고는 다시 줄다리는 시작됐지.



근데 이게 웬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다시 한 꺼번에 뒤로 다 나빠졌지. 다시 밧줄이 끊어졌어ㅋㅋㅋ 우리 교장선생님도 생각할수록 웃긴 장면이었다고 말씀하셨어. 30년 교직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ㅋㅋ 여고생들의 무시무시한 체대, 밧줄을 끊어버리는 줄다리기... 아 진짜 영상 첨부을 못 하는 게 아쉽다.ㅠㅠ

-제보자: 민세진(진주제일여고 1학년)

필통숲에 사연을 올려 주세요

신문지면에 채택된 분께는
문상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필통숲>으로 오세요. 진주 청소년, 필통 독자들의 대나무 숲입니다. 어떤 얘길라도 좋습니다. 함께 웃고, 공감하고, 화내고, 욕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신문 지면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 중 채택된 사연에는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 1만원)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만발 사연, 황당했던 에피소드, 아주 특별한 경험, 분노 유발 사연은 물론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제보도 함께 합니다.



덜컹~~ 16명 엘리베이터에 갇히다

바야흐로 팝스를 할 때 었어.ㅋㅋ 우리 학교에서는 1600m 달리기, 시력검사, 50m 달리기, 유연성 등등 여러 가지를 검사했는데 맨 첫 번째로 1600m 오래달리기를 했어. 이런 날은 날씨가 참 중요하잖아. 그런데 운도 없지. 이날 눈치 없게도 날씨도 겁나 더웠지. 안 그래도 힘든데 애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고 땀에 폭삭 젖어 있었어.

난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유연성 검사를 하러 갔어. 여기까지는 너무 정상적이고 재미없는 그 저 그런 팝스일 뿐이었지.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강당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전제 강당 건물이 총 4층짜리인데 우리가 가야 할 체육관이 4층에 있었어. 근데 그 최신 시설의 강당에는 보기 드물게 엘리베이터란 놈이 설치되어 있었던 말이야.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놈을 보는 순간,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자석에 끌리듯 그 앞에 섰지. 너무 힘든 나머지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결심한 거였어.

엘리베이터 자랑하려고 글을 쓰진 않았겠지.^^ 또 여기 필통숲에 올리지도 않았겠지? 그 순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호기심이 발동했어. 엘리베이터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15명라고 딱 하니 적혀 있었지. 얼마나 태울 수 있을까 라는 쓸데없는 호기심은 결국 16명을 태웠어.

문이 닫히고 4층으로 향해 올라 가길래 신기해하며 열기왕성한 남고생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는 환호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해피엔딩일 것만 같았지. 몇 초가 지났을까? 갑자기 쿵~ 어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일어났지. 크게 흔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덜컹거리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야. 16명은 너나할 것 없이 순간 당황할 수 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일. 문도 안 열리는 거야... 애들은 땀범벅인데다가 금방 벽에는 습기까지 치올랐어. 또 그중 한 명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문 열어 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나. 어떤 친구는 방귀를 뀌겠다며 테러 위협을 하지 않나. 완전 아수라장

이 되었어. 서서히 웃음기도 사라져 갔지.

정말 무지 더웠어. 16명이 땀이 서 있었으니 상상이 갈거야. 나중에는 너무 더운 나머지 애들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상 행동까지 보이게 시작했지. 엘리베이터 벽에 "xxx 여기에 잠들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안해 애들아" 등등의 말들을 적기 시작했어. 한편으로는 그렇게 진짜 오랫동안 구조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끔찍한 생각도 들었어.

거의 20분이었어.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20분이었어. 특별하고 힘들었던 그 날의 사고, 좁은 엘리베이터 안의 16명은 그 날 이후 학교의 전설이 되었고, 온갖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 16명은 우짜 되었겠나?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분명한 건 단체로 타는 엘리베이터 권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꼭, 꼭,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확인하고 타길 바래.ㅠㅠ

-제보자: J군(진주고 2학년)

[취재/정리: 김정빈(진주고2)기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준섭, 누가 뭐라던 너의 열정은 최고다! 진주고 2학년 오준섭



"성실히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면 이것 저것 책임을 맡게 되고 항상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탓에 이런 저런 뒷담화에 시달리기 일쑤일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친구가 좋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친구. 눈빛이 살아 깨어 있어 주위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친구가 참 좋습니다. 그런 친구 오준섭을 소개합니다."

◆5문 5답

Q1. 소개?

진고 2학년 오준섭. 그냥 그대로 오준섭!

Q2. 직책?

직접 말하러 하니 쑥스럽네요.ㅋㅋ 학생회 부회장, 교내 동아리 부장, 6·13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진주 지부 공동대표(경해여고 친구랑)를 맡고 있습니다.

Q3. 진로?

넌게는 법조인, 좀게는 변리사

Q4. 진고?

90년의 유구한 역사와 명성에 걸맞게 선생님들과 학생들, 넌게는 동문 분들까지, 모두 최고들만 모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Q5. 별명?

노빠꾸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하고 행동해서인가 봅니다..?

◆민감한 질문



<오준 청소년모의투표운동에 열심이다>

Q1. 향후 진고의 대권(?)을 구상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음..대답하면 공식 출마 선언인가요?^^ 아직 마음을 굳히진 않았지만.. 진주고 학우들의 뜻에 맡겨야겠지요?^^

Q2. 청소년 참정권, 찬성하시나요?

투표, 정치, 사회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찬성합니다.

Q3.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시나요?

제 친구들을 보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Q4. 현재 우리학교, 진심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양자택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VS 날 좋아해주는 사람 ○

*공포영화 VS 액션영화 ○

*아자 도망치고, 선생님께 혼나기 VS 부모님께 혼나기 ○

*맘스터치 VS 버거킹? 난 맥도날드!

◆꼭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롯데리아 안 먹는다."

[취재/임수중(진주고2)기자]



누구에게나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멋진 친구가 한명쯤은 있죠. [필통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필통홈페이지나 카톡(feeltong1318)으로 신청해 주세요]



<좀 멋진 사진도 하나쯤~ 모의법정>



<진주고 간부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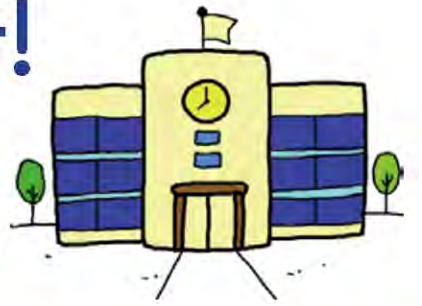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만 있다] 진양고, 대아고편

전 교실 전자칠판 & 교실마다 베란다!

‘학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어느 학교나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학생들도 거의 별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교문, 교실, 운동장, 책바퀴 돌 듯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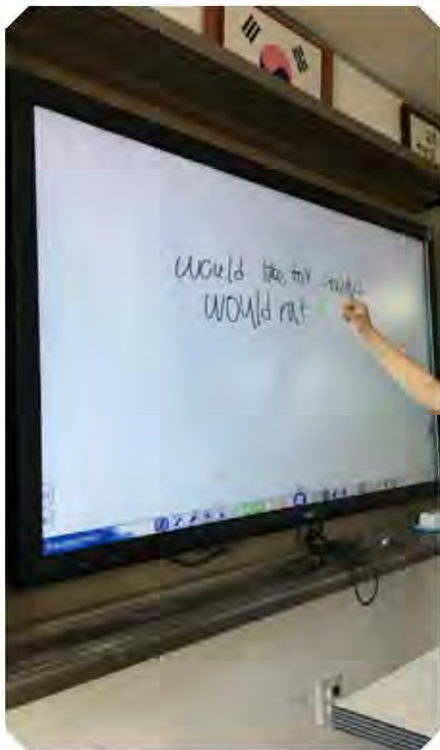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학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은 없을까? 필통에서는 각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학교에만 있다’ 이번호에서는 진양고와 대아고 기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것’을 찾아보았다.

(4월호 기사중 대아고 기사내용이 잘못 편집되어 인쇄된 점 사과 드립니다. 이번호에 잘못된 편집을 바로잡아 다시 실습니다.)



진양고등학교에만 있다

전 교실에 전자칠판 진양고의 클래스!



학교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 교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 바로 칠판이다. 칠판 없는 교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누구나 칠판하면 분필칠판을 떠올릴 것이고 분필을 들고 수업하시는 선생님, 필기하는

학생들, 조는 학생들에게 날라다니는 분필,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날리는 하얀 분필가루를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분필가루가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학교의 칠판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바뀌지 않고 분필 칠판이 대세로 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학생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 등에 주력하고 있으면서도 흰 가루가 날리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분필칠판 교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남은 학교 984곳의 교실 2만5천553곳 가운데 58.6%인 1만 4천980곳이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사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66.1%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52.2%, 고등학교는 52.4%, 특수학교 25.7%로 나타났다.

화이트보드 칠판이나 수용성 분필 칠판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렇듯 분필용 칠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에서 유일하게 학교 전교실에 최신 전자칠판을 설치한

학교가 있다. 바로 진양고등학교다.

진양고등학교는 특정 교과교실에만 전자칠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실에 전자 칠판이 구비되어 있다. 전자칠판의 브랜드는 AHA이며 하얀색 그림판을 띄어 전자칠판에 필기가 가능하다. 영어시간에는 교과서의 본문을, 한국사 시간에는 다양한 지도나 자료를 띄워 화면에 바로 필기가 가능하다.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양 옆에는 교실에 따라 화이트보드나, 일반 녹색 칠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전자칠판을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아 반응이 좋다. 또한 수업한 내용을 편리하고 쉽게 저장할 수도 있고 지우기도 편하며 수업자료를 활용하기 정말 편해 장점이 많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칠판은 다른 학교들도 진양고처럼 하루 빨리 전자칠판으로 교체했으면 한다.

[취재/ 장은영(진양고1)기자]

대아고등학교에만 있다!!

매년 전교생이 참가하는 20Km이상 행군!



매년 장거리 행군을 하는 학교가 있다?

행군은 왠지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정확히 따져보면 행군은 군사용어다.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대 이동’을 일반적인 행군의 정의다. 대아고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함께 전교생이 20킬로가 넘는 거리를 함께 걷는 행사를 빼놓지 않고 있고 대아고만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이렇듯 대아고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걷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열중대로 정렬한 전교생 1000여명과 모든 교직원이 보통 20~25km 정도 걷는데, 매년 코스가 약간 변경되어 걷는 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7년 경우엔 교직원 및 동문 100여명과 재학생 1049명이 참가했고 학교 교정을 출발해 남강댐 탐방, 남강변 에나길 순례, 진주성 계사순의단 참배 등 총 21km를 완주하는 코스였다. 각 학년의 학급마다 기수들이 있어 깃발을

들고 행군을 하는데 학년마다 깃발의 색깔이 다르다. 3학년은 파란색, 2학년 초록색, 1학년 빨간색으로 신기하게도 학년별 명칭의 색과 동일하다. 복장은 많은 활동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복(준주복)으로 똑같이 통일된다.

평소 이른바 ‘택시운전사’라고 놀림 받던 대아고 교복도 끝없이 펼쳐진 행군 대열속에서는 무척 근사해 보인다. 행군이 끝나갈 때쯤 진주성 안에 있는 순의단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진행된다. 이때 기수들이 계단 각 층에 올라 깃발(오민기; 대아고 교기)을 45도로 들어 올리는데 행군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

학교에서 왜 행군이나? 뭘 고생이나?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학년초에 낯선 친구들과 같이 땀 흘려 행군을 하고 나면 학년초 서먹했던 교실 분위기가 반전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어찌됐던 전교생이 매년 행군을 하는 학교는 아마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아고만의 전통이다.

교실마다 베란다가 있다?



대아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학교 건물을 보고 조금 의아했을 것이다. 보통의 일반적인 학교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규모가 큰 아파트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학교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비밀 하나가 생겼다. 바로 대아고의 모든 교실에는 베란다가 있다는 것이다. 즉 보통의 학교 교실은 복도 반대편측이 그냥 창으로 되어 있지만 대아고는 외벽 끝이 창이 아닌 ‘베란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와는 다르게 시멘트로 된 벽이 아닌 샷시로 된 난간이 일자로 가로놓여 있다. 그 안쪽은 아파트 베란다와 비슷한 정도의 공간이 교실 창밖에 있다는 얘기다. 애초 건물을 지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은 빨래건조대를 비치해 체육시간 후 땀에 젖은 체육복을 건조시키거나 청소 후 걸레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또 짝 막힌 교실안, 반복되는 일과속에서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작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을 고려하면 교실밖 베란다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6년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베란다는 출입금지 상태이다. 베란다와 관련되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현재 대아고 학교 건물의 학년배치는 위에서부터 1,2,3학년 순인데 과거엔 제일 위층부터 아래로 고3,2,1학년 순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학년의 층이 바뀌게 된 이유가 고학년들이 베란다에서 아래로 자주 침을 뱉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실밖 베란다 대아고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취재/ 양영진(대아고2)기자]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을 요구하자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칠판과 같은 일상들이 반복해서 지나가며 약속된 시간을 채운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것만 같은 학교생활. 잔잔한 일상에 가끔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몸을 다치게 될 때다. 어쩌면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5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야외활동이 많아져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간단한 상처야 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큰 부상이 생기면 부모님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일이 커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가공명영상(MRI)이나 수술등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장기화 되고,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현실이 된다. 바

로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이런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심사 후 보상한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란 교내의 운동 활동,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의 활동(동아리 활동 포함), 교육과정 외의 수업(현장실습), 기타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자해나 지시불이행, 질병, 가해자가 존재, 등하교시 교통사고(자동차 사고로 접수)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담임선

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고가 난 후 학교에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생 사고를 통지한다. 이후 치료가 완료된 후(중에도 가능) 학교나 학부보가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학부모가 직접 청구 할 경우 한국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f.co.kr>)의 자료실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다운로드 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심사후 지급하게 되고 이익이 있다면 보상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경우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외국인 학교 제외)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보상을 요청 할 수 있



〈교내행사때 손을 다친 고교 2군, MRI를 촬영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다쳤다면 지체 없이 선생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취재/ 광명구(진주교1)기자]

진로, 벌써 정해야 해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진로 일관성, 과연 정당일까

친구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너 나중에 커서 뭐할래?", "진로는 뭐로 정할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오간다. 그럴 때 마다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부터, 직업까지 다양한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한다.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자 "진로 희망 사항"이라는 칸을 볼 수 있다. 이 칸에는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 낼 수 있다. 대학입학사정관들은 이를 보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합격 여부에 참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칸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최대한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적어낸다. 학생들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쓰이기도 하는 생기부의 중요한 기재사항이다.

그러나 진로와 관련된 생기부의 현실은 학

생들에게 진로 일관성을 요구하고 지금 당장 평생 무엇을 하고 싶지 답을 찾으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 진로가 확실하지 않고 꿈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을 루저 취급을 당한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군(18,남) : 진로를 문과계열에서 이과계열로 바꿨는데 진로 일관성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까봐 겁나요.

B양(18,여) : 말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정작 10대 청소년들에게 진로의 일관성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C군(17,남) : 아직 17살밖에 안됐는데 꿈이 확실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요된 꿈, 쥐어 짜서라도 만들어 내야 하는 꿈, 그게 옳은 것인가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관심

사가 변하고 진로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장기의 아름다운 과정임에도 빨리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과 정해진 진로를 벗어나는 것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진로가 일관되지 못하다면 진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될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학입시를 앞 둔 학생들에게 생기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생기부의 '진로 희망사항'이 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지만 이미 현실에선 상식이 되어 버린 듯하다. 예를 들어 K대의 경우 진로가 변경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진로가 3년간 연관성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목격하고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단 한 가지 진



로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이 살아 갈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의 교집합을 찾아가며 진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우리 교육도 그것에 발맞춰야 한다.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학생들에게 빨리 단 하나의 길을 정하라고 강요하는 사회, 그런 교육은 아마도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일 수 없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응원해주며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로의 일관성, 그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취재/ 임수중(진주교2)기자]

학교 옥상은 출입금지 구역?

학생들의 휴식 공간, 텃밭 등 활용을 고민해야...

하루 일과를 거의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학교가 늘 생활하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석구석 속속들이 그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실과 운동장, 급식실 등만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학교안에는 우리가 3년 동안 한번도 가보지 못하거나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 공간도 있기 마련이다.

학교의 옥상은 어떨까? 여러분은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학교 옥상은 왜 한결같이 굳게 닫혀있을까? 건물 맨 꼭대기 층에 붙어있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혹은 '통제 구역'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았는가?

옥상 출입금지의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발적 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 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책이란 참 극단적이고 소모적으로 느껴진다.

이렇듯 대부분의 그 넓은 학교 옥상은 '통제 구역'이라는 낯설고 함께 굳게 닫혀 있다. 전혀 학생들과는 관계없는 죽어 있는 공간으로 불필요한 기구들을 두는 창고로 쓰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학교 옥상은 학생들이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출입금지'가 유일한 정답이어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단순히 안전사고의 문제라면 옥상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들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다.

시대가 변하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면서 교내활동들도 다양해지다보니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 옥상은 안전사고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까지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의 몇몇 학교들은 학교옥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멋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옥상 공원은 휴식과 힐링을 넘어 학생들간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옥상을 텃밭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험하고 극단적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편견에 따른 통제가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인지 모른다. 그러나 '출입금지' '통제구역'을 허물고 안전하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짜 학교에서 일어날 극단적인 사고를 막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하루빨리 학교 옥상이 학생들의 공간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취재/ 이다은(진주제일여고2)기자]



[동아리탐방] 명신고 밴드동아리 발악

“우리 동아리 발악만의 단독 공연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혁오, 국카스텐, 비틀즈 웨더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밴드라는 점이다. 밴드? 밴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강한 비트에 맞춰 연주하는 록 밴드?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재즈 밴드? 어느 것이라도 좋다. 이번 동아리 탐방에서는 명신고의 대표적인 동아리 중 하나인 밴드 동아리 '발악'을 만나봤다.



(부장 - 명신고 2학년 정희원 학생)

Q.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명신고등학교 밴드동아리 부장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정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발악' 이고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는 아주 멋진 친구들로 구성되어있는 밴드 동아리 입니다.

Q. 동아리 내 어떤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저희 동아리는 보컬,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키보드,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 동아리에는 대금을 연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퓨전이라 할까요.^^

Q. 밴드의 자랑거리, 또는 자랑하고 싶은 부원이 있나요?

A. 우리 동아리는 악기면 악기, 보컬이면 보컬,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부원,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죠!

Q. 밴드 동아리라면 예체능 분야인데, 연습이나 대회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진 않나요?

A.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

에 부원들이 연습은 하되 시험기간에는 보다 자유롭게 연습과 공부를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Q.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 소개 좀 해주세요.

A. 저희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은 가수 김건모의 '서울의 달' 이라는 곡입니다. 서울의 달은 나온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특유의 그루브가 있기 때문에 밴드에서 연습하기에 적합한 곡이라 생각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ㅎㅎ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A. 우리 동아리 발악만 공연장 하나를 빌려서 우리들만의 공연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외

부 요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무대를 준비하기보다 저희가 의도한대로 자발적으로 연습하고 공연도 준비하여서 공연장을 빌려 우리만의 무대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렇게 필통에서 동아리탐방 코

너에 저희 발악 밴드동아리가 취재가 되고 신문에 올라가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저희 동아리가 홍보되니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네요. 1학년 후배들에게 좋은 동아리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김민수(명신고1)기자]

〈공연 후 다같이 찍은 사진〉



〈발악 공연하는 사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 [병사]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사람.

▶ 장애 QUIZ ◀

▷ 당신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 | |
|------------------------|-------|-----------|
| Q1.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 _____ | (O , X) |
| Q2. 장애인은 타고나는 것이다. | _____ | (O , X) |
| Q3. 나는 장애인이 될 일이 없다. | _____ | (O , X) |
| Q4. 뇌병변장애인은 지능도 낮다. | _____ | (O , X) |
| Q5. 장애우가 올바른 표현이다. | _____ | (O , X) |

▷정답풀이

A1. X : 장애인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장애인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A2. X, A3. X : 장애인의 90% 이상은 사고로 장애를 얻은 후천적 장애인으로 장애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당신 역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4. X : 뇌병변장애인을 중에는 몸이 불편

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낮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A5. X : 과학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의 표현이 가능해야하나 장애우의 경우 1인칭으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우에서 '우' 는 친구를 나타내는 말

인데 친구는 1인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집단이나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 예를 들어서 부자는 1인칭(나는 부자다), 2인칭(너는 부자다), 3인칭(우리는 부자다)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우의 경우에는 나는 장애우이다(x)로 쓸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닉 부이처-

좋은 도시, 평범한 편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사기 당해 봤니?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알아야 예방한다

학생들이라면 새 물건을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 중고거래를 해 본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서로간 윈윈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가끔 SNS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벼룩이 왔어요.' 라는 어처구니없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돈만 받고 연락이 끊어진 중고거래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자주 거래를 하지 않거나 순진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직거래를 하다가 판매자가 돈만 받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3만 1743건으로 하루 평균 360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사기의 2017년 발생 건수는 총 9만 2636건

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약 70%를 차지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용돈을 모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청소년들이 속절없이 사기를 당하게 될 수 있는 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 첫째, 경찰청에서 만들어 배포한 '경찰청 사이버캡'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를 하기 전 거래 대상의 휴대폰,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치트' 사이트를 통해 이름, 아이디,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총 10여 가지의 정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결제 시스템이란 '결제 대금 예치를 의미하

며, 소비자가 물건값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이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판매자가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메신저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방과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이다.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조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하고, 직거래를 회피하고 택배 거래만을 하려 하고, 이전 거래 기록 없이 너무 많은 물건을 한 번에 팔려 하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 아이디만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 등 중고거래 사기꾼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미리 숙지하



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한다면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재/ 정의찬(진주교2)기자]

아, 냄새 난다! 냄새!

코인노래방 위생상태 청소년 건강 위협 한다

학생들은 각자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가정불화 등 다양한 고민, 걱정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소한다. 그 방법으로는 폭식, 운동, 비행, 잠... 등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쉽게 다가오고 있는 해소법이 하나 있다. 바로 '코인 노래방'이다.

코인 노래방은 말 그대로 코인(coin, 동전)을 넣어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방인데, 한 시간에 약 10000원인 일반 노래방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리를 질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딱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카운터조차 없어 위생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또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제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특히 괴괴한 냄새가 나거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방치되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에 많은 방(노래방 기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작은 공간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는 물론 마이크 덮개가 없는 곳도 있다. 진주 시내 인근 코인노래방 4곳 중 2곳만 쓰레기통과 마이크 덮개가 구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쓰레기통이 없는 방이 많았다. 또한 마이크 덮개가 없었고 덮개를 구하기 위해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직원은 찾을 수 없었다. 마이크 덮개가 없는 코인 노래방의 마이크에는 여러 사람들의 침 냄새는 물론 담배 냄새, 심지어는 술 냄새까지 나기도 했다.

평소 코인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는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마이크를 엉덩이에 비비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 코인노래방 알바생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쓰레기통에 마이크를 쑤셔넣어진 사진



을 SNS에 올려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코인노래방의 부스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1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다. 좁은 공간의 가구, 각종 스프레이, 담배연기 등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이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오염이 매우 심해진다. 또 노래방의 특성상 침이 마이크는 물론 실내에 그대로 남아 세균이나 바퀴벌레의 서식지가 돼 호흡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시로 환기하고 청소를 통해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방치 할 수 밖에 없을까? 청소년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불



보듯 한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마이크 덮개가 있다고 해서 마이크 속의 세균이 100퍼센트 향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의 침이 튼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단 안전한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마이크 덮개만이라도 제대로 비치하게 하고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만 하면 코인노래방은 훨씬 위생적이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코인노래방을 찾는 학생들을 스트레스는커녕 건강마저 위협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피어싱? 짹 막힌 것은 어른들의 생각일까?

신체의 자유 VS 학생의 본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남녀 구분 없이 귀에 귀걸이를 했거나 피어싱을 한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여러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미용, 치장의 목적으로 착용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몸에 귀걸이나 피어싱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제나 탄압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라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지위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우는 어떨까? 학교에서 귀걸이, 피어싱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자유로운가? 또 학생들이 이런 피어싱을 비롯 각종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옳은 것일까? 필요한 것일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봤다.

A학생(남, 17세, 착용) "이건 따질 것 없이 개

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물론 치장 목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로 인해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막는 것 보다는 액세서리 착용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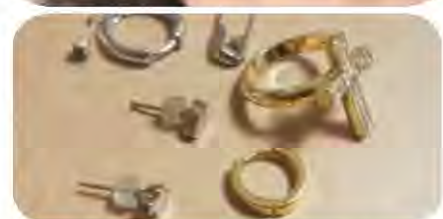
B학생(여, 18세, 착용)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하루종일 신경 쓰며 치장에만 몰두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치장에만 몰두하고 학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학생으로 일반화 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액세서리 착용은 개성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C학생(남, 17세, 미착용) "저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편이에요. 학생으로서의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학교는 학교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자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학교밖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체의 자유와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규범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변화를 바라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공간을 잇고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난 무분별한 액세서리 착용이나 장식적인 피어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제와 규제는 교육적일 수 없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조성을 끌어내는 교육을 원한다면 규제는 최소화하고 학생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분명 한 건 액세서리가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면 하지 말고 학생들과 함께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학생 본분을 벗어나지 않



는 선에서 액세서리 착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장기에 콧바퀴를 뚫는 건 의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피어싱 등은 의료행위로 아무데서나 시술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 말이다.

[취재/ 김민수(명신고1)기자]

반티,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입나?

야쿠자, 환자복, 죄수복, 이런 반티문화 문제 있다

체육대회의 달, 5월이 오면 학생들 사이에서 반티로 무엇을 맞출지 의견이 분분해진다. 좋아하는 축구팀의 유니폼,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비싸지만 예쁜 한복까지 가지각색의 '반티'들은 청소년들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반티는 자연스럽게 학교문화,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간의 소속감을 높여 주고 학창시절 기억될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겉으로는 학급별로 단체복을 통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자극적이고 튀는, 우스꽝스런 복장으로 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변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개성 있고 톡톡 튀는 청소년들의 재기 발랄함을 벗어나 튀어야 된다는 무리한 설정으로 상식을 벗어난 의상 컨셉이나 디자인으로 반티의 원래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포털 사이

트에 반티를 검색하면, '야쿠자', '정신병원' 등의 이름을 달고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반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 폭력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검은색의 가운데 일본풍의 용, 꽃 등의 그림을 그려 넣은 디자인으로 '야쿠자 반티'로 팔리고 있다. 또한 여러 색상의 환자복과 죄수복까지 아무렇게나 인기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반티문화는 '자유'와 '개성'으로 넘기기엔 조금 불편하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범죄자, 환자 등은 학생들의 반티 소재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죄수복, 야쿠자 복장 등은 입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상 자체로 범죄자를 회화하거나 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모욕이 될 만한 환자복 역시 적절한 복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반티는 체육대회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고 활동에 편한 복장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용성면에서 문제가 되는 상식밖의 반티들은 체육대회와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실용성 측면이나 교육성 측면, 그리고 반티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봐도 조직 폭력단과 환자를 형상화 시키는 의상 등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반티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방관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반티문화는 더욱더 변질되어 갈 것이다.

이번 여러분들의 반티는 어땠나요? 개성 있고 멋진 의상을 입고 하루뿐인 체육대회를 즐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물론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매년 쓰레기를 대량생산하는 청소년이 아닌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반티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속에 자기 반만의 멋진 반티문화를 만들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취재/ 정해일(진주여고2)기자]

74.9% 석면학교, 숨 쉬는 것도 공포

1급 발암물질 석면과의 공생은 언제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집보다 더 오랜시간 생활하는 곳이 학교다. 그 학교가 항상 1급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교사들도, 또한 학부모들도 한번쯤은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바로 석면이 야기다.

'교실 석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 석면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시켰다. WHO는 석면 섬유가 폐에 들어갈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에 알렸으나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 건축물 대부분이 석면을 원료로 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석

면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중심에 모든 학교 건물이 있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피부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이 발병될 수 있는데 더욱이 석면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잠복기가 10~40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소리없는 질병'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경남 지역 유치원·초·중·고교 1678교 가운데 74.9%인 1257교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27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석면 건축

자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아직도 10년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석면으로 된 학교건물이 경남도내에 아직도 많으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석면 병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수업을 하면서 천정마감재(텍스) 파손부위 등에서 떨어지는 미세 석면가루를 장기간 호흡하면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일선학교는 전문가도 아닌 행정직원들이 안전장비나 측정장비도 제대로 없이 육안으로 석면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존재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가, 제자들이 항상 생활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예산부족이나 수업 차질등의 이유를 들어 석면학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당장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미세한 석면 먼지들이 학생들의 입과 코로 흡입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 한다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석면학교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듯 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학교에서 석면을 없애 달라고 말이다.

[취재/ 강아영(삼현여고2)기자]

등하교 복장은 학생다워야 한다?

체육복 등하교를 허하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복이 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교복차림이고 학교마다 그 등하교시 복장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러한 복장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왜, 꼭 교복을 차려입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학교와 교사들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학생답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복 이외에 체육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는데 자신이 선택해서 편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지 꼭 교복이어야 하는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서 학생들과 교사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체육복 등하교문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A(18세)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한다고 해서 문제 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등교는 아니더라도 하교는 편하도록 체육복 입는 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주시 관내 한 고교 교사에게 학생들의 체육복 등하교에 대해 물어 보았다. 대답은 단호했다. "우선 좋게는 안보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입는 옷이지 교복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편하게 입으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 규정에는 원칙 상 체육복 등하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체육복 등하교 요구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도 물었다. "학생들이 규정에 불만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각 반의 반장이나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러나 학생은 규정을 따라야죠. 복장규정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대부분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크게 대조를 이룬다. 실제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체육복 등하교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체육복 등하교시 적발될 경우 벌을 받는 학교도 있었고 생활기록부 운운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여고에서 '3학년 체육복 등·하교 허용해주세요'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땀뻑한 셔츠와 허리·배를 조이는 치마가 수험생의 피로감을 높인다"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교만이라도 편하게 입고 교문을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게 문제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학생들은 맛을 부리고자함도 아니고 반항하기 위한 도구로 학교의 복장규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들이 입는 옷 정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결같이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차림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요만 해서 될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취재/ 전수민(진주중앙고2)기자]



[선배가 말하는 학과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1세기 정보화시대, 다양한 분야의 활약이 기대되는 전문기자를 양성한다”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학과대표 3학년 나군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번 나군아입니다. 문헌정보학과에 재학중인데, 문헌정보학과는 크게는 서지학, 도서관학, 기록관리학, 정보학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고, 세부 분야로는 정보이론, 정보학, 서지학, 자료조직론, 정보유통, 기록관리 이렇게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정보학과 자료조직론, 기록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Q.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선 문헌정보학 전공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문헌정보학은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입니다. 문헌정보학과에 커리큘럼, 이화여자대학교 입장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 문헌정보학과 1학년 강의로는 전반적인 기초 강의인 문헌정보학의 이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강의로는 서지학의 이해, 기록 관리학의 이해, 정보유통,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정보자료선택의 이해 등이 있으며 3학년 강의로는 정보 분류, 공공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과 검색엔진,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등이 있고, 4학년 강의로는 디지털 보존, 고문헌 관리, 비도서자료관리, 도서관 실습 등이 있어요.

Q. 언제 문헌정보학과를 알았고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문헌정보학과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에게도 당시 잘 알고 있었던 과는 아니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었죠. 전 원래도 도서관 봉사를 할 만큼 도서관을 좋아했고, 문헌정보학과라는 학과가 있

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관심이 생겨서 선택했어요.

Q. 학과 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학교에 해당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학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문헌정보학과 수시 전형은 미래인재전형과 논술전형이 있어요. 미래인재전형의 수시등급은 합격자 평균 등급이 2.8, 불합격 평균 등급이 3.4이며 수능최저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였고, 논술전형의 수능최저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였습니다. 정시로는 문헌정보학과로 뽑지 않고, 사회과학부생으로 뽑는데 합격 컷이 표준점수 517이었다고 합니다.

Q. 대학 입시때 독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입시 때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독서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 확실히 독서 능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 독서 능력이 뛰어나면 훨씬 편하게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특성상 책이나 정보를 좋아하기만 해도 학과 생활에 도움이 된답니다.

Q. 학과의 전망,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학과의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전문가의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센터, 기업체, 신문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 내에서도 희망하는 진로가 매우 다양해서 컴퓨터공학이나 경영학을 복수전공하여 기업체로 가려는 사람, 도서관 사서가 되려고 하거나 사서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출판사로 가려는 사람 등 다양한 진로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Q. 타학과 비교했을 때 문헌정보학과만의 메리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헌정보학과는 졸업을 하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사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고, 교직과정과 함께 이수한 경우에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요. 모든 사서공무원 시험과, 대부분의 도서관 사서 채용 조건에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보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졸업한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문장인의 밤'〉

Q. 학교 사서와 공공기관 사서의 차이가 있나요?

공공기관 사서가 사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차이가 있어요. 사서 공무원은 일정 시험 자격을 갖추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만 사서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 시험, 지방 시험, 국회 도서관 시험 등 장소에 따라 시험도 다르게 분담합니다.

Q. 대학 생활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대학 생활 중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꼽아보려면 다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일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 못하겠네요.(웃음) 다들 문헌정보학과라고 하면 다들 조용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들 활기차고 재미있답니다.

Q. 학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조별 과제인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능력을 쌓는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학과 대표를 맡고 있다는 부담감이 책임감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Q. 문헌정보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헌정보학과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해요. 사서만을 생각하고 이 학과에 왔다가 학교 강의를 듣고 다른 길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서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서 이 학과에 오고 싶으신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사서가 여러 분야로 지식이 많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도서관에 정리돼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그 도서관 사서분들께서 직접 이 책이 어떤 분야(예를 들면 의학 분야에서 암에 관한 분야이다. 암 중에서도 혈관암에 관한 분야이다 이런 식이에요.)의 책이고 어떤 시기에 쓰였나 원작이 어떤 언어로 쓰였나 등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분류를 하신 것이랍니다. 도서관의 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문헌정보학과만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도서관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시려는 학생들은 본인이 분류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좋아하는지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알려주마!

문헌정보학과 무엇을 배울까요?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로는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 그리고 데이터정보학과가 있는데요.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에서는 문헌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목록작성, 정보검색,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처리, 정보네트워크 등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며 자료전산화와 관련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습합니다.

또한 고문헌 관리, 독서지도법, 출판과정, 도서관경영 등 정보의 조직과 전달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과목 : 문헌정보학개론, 서지학개론, 정보와 사회
—심화과목 : 정보조사방법론, 정보분류론, 정보검색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정보서비스론, 정보처리연습, 도서관경영

문헌정보학과에 진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면 기업체로는 도서관, 문헌자료실, 영상 및 녹음 자료실, 출판사, 대형서점, 문화센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서실, 국, 공립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가기록원 등의 직업이 문헌정보학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사, 데이터베이스개발자, 사서 등의 직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진로를 정했다면 이에 맞는 해당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문헌정보학 관련 취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자격 : 사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개설 대학은?

문헌정보학과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는 서울대학교 고전문헌학과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세대학교의 문헌정보학전공과 나사렛대학교의 점자문헌정보학과 등이 있으므로 책을 좋아하고 문헌정보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해당 학교의 전형안을 바탕으로 진학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별과제 수업/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신입생 문헌정보학과 설명회〉



〈이화여대 지하캠퍼스광장 ECC/ 도서관〉

[JOB을 잡아라] 119안전센터 김재민 소방교를 만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 직업, 응급구조사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일입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진주 소방서 상대 119안전센터 3팀 구급대원이자 응급구조사인 김재민입니다.

Q. 응급구조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응급구조사는 구급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고 보면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상처치료나 지혈, 심폐소생술 등이 대표적이고 병원에서 하는 일을 현장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Q. 국가고시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인가요?

A. 3년을 했는데 떨어지면...(웃음) 거의 8~90%는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를 안한 사람은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대학교 3년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면 구급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저희는 주간과 야간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간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야간은 5시 30분정도에 출근하게 되죠.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주로 출동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위험한 직업인데 위험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A. 나오긴 나오지만 금액은 적어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들의 처우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Q.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A.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여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죠. 사람을 살린 거니까요. 그런 때 만큼은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반대로 구급 이송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Q. 현장에 나가시면 보기 힘든 끔찍한 장면도 많이 보실텐데 트라우마는 없으신가요?

A.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끔찍한 장면을 안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정신적 고통이 없을 수 없죠. 그래도 저희는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색을 안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Q. 진상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A. 엄청 나죠. 많아요. 예를 들어 술 먹고 집에 태워달라는 사람? 별의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죠. 솔직히 실제로 응급환자 비율보다 비응급환자 비율이 더 많아요. 그냥 택시를 타거나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출동해 보면 더 많더라고요. 이런 꼭 알아야 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Q. 여성이 근무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나요?

A. 여성의 비율이 좀 적긴 하죠. 하는 일 자체가 체력을 많이 요하는 직업이다 보니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점점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다.

Q. 응급구조사가 소방서 외에도 병원 등 다른 분야에도 계시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병원과 소방서와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근무합니다. 기업이나 마사회 같은 곳에서 안전관리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 선택이죠. 어디서 근무할지는. 요즘은 대개 소방관을 많이 선호하죠. 공무원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Q.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응급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응급. 급한 환자를 대하는 걸 배우죠. 또, 기본적으로 해부학, 생리학은 다 배웁니다. 의예학과와 간호학과가 배우는 그 사이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A.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무엇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도 위기가 큰 어려움에 닥친분들에게 도움을 직업이니까 평범한 직업을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직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는 도움을 주는 일을 잘해야 하니까요.

Q. 힘들고 직업으로서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A. 글쎄요. 화날 때가 많다는 것. 사소한 일에 구급대원들을 부를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쉴 때 쉬지 못하고 일하잖아요. 휴일이나 명절 때, 오히려 그럴때 더 일이 많죠. 그게 단점이겠죠.

Q.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꼭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맘이 커야겠죠. 그냥 '안정적인 직장' 그런 일을 찾는 사람들은 아예 열심도 안 했음 합니다. 일단 목표를 잡았다면 남들만큼이나 아니라 그 이상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의지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에게 이 직업을 당당히 추천합니다. 공부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한 체력도 함께 키우세요.

Q. 응급구조사로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A. 저희 출동이 자꾸만 줄어드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교도관, 군인, 경찰, 해안경찰 등은 모두 국가 공무원인데 유일하게 소방관만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직업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 및 이송업무
-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로 포도당이나 수액 등의 약물 투여, 호흡 유지, 기도개삽입 등의 심폐소생술 시행

응시자격

응급구조사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3/4년제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 ① 응급구조학 학위취득 자
- ②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종사분야

소방공무원, 경찰청, 산림청,
병원응급실, 구조대 등...

2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종사분야

병원응급실(응급조치 범위가
1급과 차이가 남), 스포츠센터,
산업체부속의무실 등...

응급구조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먼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한 과정을 이수합니다. 이후 응급구조사 1, 2급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 있어요.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학교 및 국군군인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응급구조 양성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 면허를 취득하면 119구급대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진출할 수 있죠. 이외에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 응급전문 이송업체,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말을 이용한 레포트 인구 증가, 심근경색, 심장질환자 등의 증가로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구급차에 글자가 꺼꾸로?



구급차를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구급차 앞면에 '119구급차' 라는 글씨가 꺼꾸로 인쇄되어 있는데 그 궁금증을 풀었다.

그 이유는 응급상황시 도로에서 앞차의 운전자가 구급차를 접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량의 백미러는 운전자의 눈에 모두 꺼꾸로 비치게 되니 구급차의 글자를 꺼꾸로 인쇄해 백미러로 보게 될 때 제대로 '119 구급차'가 읽히도록 한 것이다. 그 효과를 떠나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응급구조사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글로벌미팅] 경상대학교 몽골 유학생 히식바트를 만나다

몽골은 한국과 비슷한 점 많아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상대 4학년이고 토목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몽골인 유학생 히식바트입니다.

Q.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나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왔어요.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한국과 인연이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죠. 처음에는 한국국제대학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과학기술대에 잠깐 다니고 지금은 경상대에 다니고 있어요.

Q.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한국 날씨가 습기가 많고 많이 무더워서 좀 힘들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몽골은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Q. 몽골과 다른 문화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몽골에서는 사회생활을 일찍 해요. 남자들은 군대도 안가기 때문에 21살이면 대학교를 졸업해요. 몽골에 있는 제 친구들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할 상황이라서 마음이 좀 급하고 부담스런 부분이 있죠.

Q. 몽골에서 한국 K-POP이 인기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K-POP은 몽골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죠. 몽골은 K-POP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도 열리는데 여기서 1등을 하면 유학을 보내 준답니다. 몽골에는 한국의 K-POP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예술 부분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이 제일 좋았어요.

Q. 몽골 학교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몽골은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학교라고 해서 초·중·고가 한 학교를 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한 반에는 30~40명 정도가 같이 공부합니다.

Q. 몽골의 학생들의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나요?

-몽골도 한국이랑 똑같이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나오는 성적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지원서를 쓰고 들어가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몽골의 대입시험은 1차적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몽골어와 수학과목 시험을 보고, 그 시험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서 수행하는 본고사를 보게 됩니다.

Q. 몽골의 학생들의 대학을 많이 가는 편인가요?

-몽골도 인구가 350만명 밖에 안되는데, 대학교는 엄청 많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범대학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Q.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 가장 좋았던 음식?

-몽골사람들의 음식은 주로 밀가루랑 고기인데, 고기를 좀 좋아하고요. 한국음식 중에서는 물 냉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더울 때 물냉면을 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요.



◀몽골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Q. 몽골의 학생들은 방과 후 무슨 활동을 하나요?

-한국이랑 다르게 학원 같은 곳은 많이 다니지 않고요, 입시학원이라는 곳은 따로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복습하는 식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요. 나머지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놀거나, 한국 학생들처럼 피씨방도 많이 가요.

Q. 한국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는 어땠어요?

-저는 아버지 덕에 한국이 친근했지만 대부분의 몽골사람이 볼때는 한국사람은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 진수민(진주중앙고2)기자]

몽골이란 나라?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564,500 평방미터로, 국경의 길이는 8158km인데 이중 3485km는 러시아와, 4673km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13세기 초 칭기스칸이 등장해 역사 상 최대의 몽골 제국을 건설했으며, 동서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제국이 멸망하고 남은 내륙 중앙부가 1688년 청에 복속되어 '외몽골'로 불렸다. 1911년 제1차 혁명을 일으켜 자치를 인정받았으나 1920년 철 폐되었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 1921년 제 2차 혁명을 일으켜 독립하였다.

[몽골의 국호]

몽골 이란 본래 "용감한" 이란 뜻을 지닌 부족이었으나, 칭기스칸에 의해 통솔된 몽골부(部) 발전에 따라 민족의 이름 "Mongol" 및 지역의 이름 "Mongolia"로 변화하였다.

몽고라는 이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북방 민

족으로부터 전쟁에 시달려 온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비하하기 위해 '우매할 몽(蒙)'과 '옛 고(古)'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본래 1924년 11월 26일 사회주의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는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으로 정하였으나 1922년 1월 개방 정책의 상징으로 국호를 몽골 공화국으로 고쳤다. 보통 우리가 "몽골" 하면 대개 외몽골(몽골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며, 내몽골이라고 부르는 내몽골 자치주는 중국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단 국가다. 그러나 분단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친근감이나 통일에의 의지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몽골의 교육]

몽골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우리나라 부모처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자녀 교육을 위해 초원에서 학교가 있는 솜(Som,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 지역으로 상당수가 이사를 한다고 한다. 초원에 사는 아이들은 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걸거나 말을 타고 먼 길을 통학하기도 하고, 새벽 6시에 기



상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오전·오후반으로 운영되는 초·중학교의 낙후된 교육여건에도 86%의 높은 문자 해독률을 보이고, 초·중학교 8학년까지 취학률은 96%입니다. 과거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로서 널리 보급됐으나, 수요가 줄면서 영어, 일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몽골의 대입시험은 1차적으로 국가가 주관하

는 몽골어와 수학과목 시험을 보고, 그 시험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서 수행하는 본고사를 본다. 이들 대학의 입시에서 특이한 점은 중앙사범대학의 입시 성적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격인 국립종합대학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시아 특유의 문화도 일정 작용하는 것 같다. 실제로 몽골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교사는 수십년 간 1위를 독점해 오고 있다.

To.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빈지혜소은소진운영수간은어!!
내가 필통우체통에 편지를 다 써보네ㅎ 중학교 너네 덕분에 아주 스펙타클 하게 재밌었다. 고마워 애들아~
나 이제 고등학교 교복 받았으니가 고등학교 교복입고 사진 찍을수 있어!!
우리 지혜랑 운영이 배고 고등학교 완전 골고루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다가 서로 다른 교복 입은거 보면 느낌이 또 다를것 같다.ㅜㅜ 보고싶어 애들아! 사랑해!♡♡♡
PS 은서조진아 우리 사진 찍은 거 내가 너무 못 나오게 차마 올릴 수가 없었다.ㅋㅋ 미안해, 다음에 이번엔 꼭장장

-from 은령

To. 1학년 6반 동미들



하이!! 내가 누군지 알려라고 믿을게,
처음부터 너무 좋은 반 친구들을 만나서 남은 2학년 두렵기도 해!
처음에는 어떻게 친해질지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좋아!
5월달에 있을 많은 행사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하고~
어찌 보면 짧지만 어찌 보면 긴... 이 시간들을 잘 해보자!!
6반! 환호해!! 이번에 오신 교장쌤! 파이팅!
6반 사랑하고 고마워♡♡♡

-FROM 기린덕후진이가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혜원

안녕 혜원아.

편지 쓰는게 정말 오글거리지만 내가 '시간인 물'이라는 말을 할 수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친해 질 줄은 몰랐다. 니가 저번에 니한테만 편지 안 써준다고 해서 여겨서 쓸게. 막상 쓸게 없지만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잘 지 내자고 우리 수능 끝나고 같이 알바도 하고 니 생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방탈출 게 임도 가고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니 내한테 꼭 선물 받아야 되잖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물줄게.

아 휴~ 착한 내가 죽어지 뭐. 이번 여름방학 때 날씨가 워터파크나 가고 니 어차피 남친 있으니까 나도 얼른 남친 만들어서 같이 전주 나 가자.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 아무 나 잡아서 사귀자고 해볼게 ㅋㅋ 항상 돈 없어서 같이 못 논건 미안해. 이제 너 학생관의 노래라 나랑 많이 못 놀지만 나도 언젠가 학생관의 노래가 되테니까 같이 공부 하고 놀자. 사랑한다. 우리 건강하게 삼현 탈 출하고 좋은 대학가자~

-from 예지니

To. 새현

5월달, 니 생일이래서 신문에 기념으로 박았 다 ㅎㅎ 나 뽀뽀해? 잘해라 앞으로~ 이번 내랑 고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반 하느 라 수고했다~ 니랑 내랑 만나면 조용할 날 없는 거 아지? ㅋㅋㅋ 3년 동안 내 뒷바라지하느라 안그 래도 작은 얼굴 더 작아져 어떡해... 말은

이리 해도 니 많이 애기는 거 알지? ㅋㅋ 오글거리니까 여기까지 하자. 어쨌든 니가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생일 진짜 축하하고 성격 좀 죽이고 대학 가서도 정기적으 로 만나자 사랑해~

-from 이쁜해죽

To. 부르주아

안녕 오주아!
이제 김예진보다 오주아가 훨씬 잘 어울려... 너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나랑 난 니가 너무 무서워서 니가 카톡 오고 학교에서 만나해서 나 도게 무서웠던 거 알지? 그 때 진심 쫄 았었다... 니가 너무 무서워서 지랄했음... 근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웃심... 영어방과후도 우연치 않게 하고 도게 애썼는데 내가 똥이 필통 던져가면서 친해 지려 노력해서 결국 너랑 나랑 이렇게 친구가 되었어... 그냥 친구도 아니지~ 난 널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해! 충 충는것도 많고 강 넘 예쁘고 많고 다 하는 주아야... 너랑 친해져서 너무 행복하단다. 널 보면 너무 쫄에서 무릎이 갈려... 이미 내 무릎은 없어진지 오래야~ 오래가구 크면 내가 버블팅장기 설치해줄게. 그대까지 살아있어 진심으로 사랑한다 오주아!!!!~

-from 너의 영원한 부반장이

저렴이들에게 ~



안녕 저렴한이들~ 가끔 오글거리려도 봐줘. 우리 1학년때 기억나? 할리갈리 할때 영주가 도연이한테 방코라 했다가 죽어질뻔 해서 우 린 눈치밥 먹기도하고 수업 더 늦게 들어 갈려고 개근한 걸래도 빨고 거미줄 치우러 가고 쓰레기 천천히 버리러가고 진짜 배틀러 지는 것만 골 라서했네... 그래도 엄청 재밌게 놀아서 그만큼 정도 많이 든 듯 ㅋㅋㅋ 이제 우리 2학년이니까 사고도 치지 말고 말도 잘 듣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자~ 이제 마무리 말씀한다. 영주 닌 이놈의 자물쇠 언제쯤 풀래? 나는 알아서 자물쇠를 잘 풀었는 데 나는 스스로 잠고있지? 그리고 도연이 난폭해지지만, 소연이 고렷해지 자. 요즘 기특해 가운이. 기리이는 효정이랑오래 가고 나쁜친 한지마. 지원은 웅덩이랑 오래가 고 송희 놀라임 괴물 그만하세요. 지연이 나는 안에 바지 좀 챙겨 입어조. 와 근데 지금 니네 친구덕분에 이런데도 나와 보고 영광이지~ 그러므로 이거 보는 즉시 우리반 으로 집합 하는게다~ 애들이 사랑해~

-from 기염등이거.

To. 김해진



하리 김해진 놀 랐지?! 내가 니를 위해서 이 리편지를 쓴 다.하. 이런친구 어디 있냐. 맞제 ㅎㅎ 우리 어린 이집 다닐 때

부터 지금까지 친구다. 몇년 친구냐~ 진짜. 우리 친구 된 지 15년 더 될까 같은데~ 여튼 나는 니가 친구여서 너무 좋아 >~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연락하면서 지낸 건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라서 그런 건도 있겠지만 니랑 내랑 인연이어서 그런거 같아... 부모님끼리 안다고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연락하고 지 내기가 쉽다. 니랑 나랑 잘 맞다는 거지!! 진짜 어릴때 항상 니집 놀 러가고 니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껌 뽑아 먹고 아이스크 림 사먹고 놀이터 놀러가고 그런게 일상이었는데... 아 쉽게도 우리가 중학교 가고 나서 그렇게 더 담해간거 같 아... 내가 정말 아쉬운 건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는거지... 니랑 진짜 독재일도 같이 다니고 같이 밤새 면서 공부하고 학교복도에서 만나면 장난도 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없어서 나는 정말 아쉽고 슬퍼... 니랑 그런 사소한 거 진짜 하고 싶거든... 서로 힘들 때 위로도 해주면서 근데 우리 고2되고나서 많이 못 만 나잖아. 니 더 바빠고 나도 바빠고 그래서 요즘에 니가 생 각날 때가 많아... 우리 진짜 어른 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우리 애 낳으면 같 이 놀게 하고 그러자!! 진짜 나는 니가 정말 좋아. 니 같이 오래되고 진정한 친 구 1명 두는 것도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 했는데 나는 이미 인생 성공한 거 같음>> 해진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서로 꿈 이루자! 진짜 사 랑한다. 우리 참습이 사랑등이 해진아~

-from 태희

To. 안녕 9반!



정신 애장자 준성 시현 도윤 보경 수환아~ 우리 가 반 배정 받고 행복해 했던 게 엇그제 같은 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버렸구나~ 같은 반 됐을때 처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 데 서로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면서 이제 목도 하면서 지내는게 정말 보기가 좋다~ 시현이랑 나 배고 너넨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을텐데 우리까지 늘 외롭지 않게 늘 아주는 거 좋다. 내가 편지 쓰는 걸. 진짜 못해서 말투가 어눌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써본다. 우리가 최근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모두 같 이 자고 밤새 놀고, 하루 종일 붙어다니면서 놀고 정말 기분이 좋았구나.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니면 서 열심히 놀아보자. 곧 입을 해육대회도 열심히 해서 축구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윤아. 제발 학교재 올라오 고 보경아 언 정년병원좀 가보고 시현아 키 크고 준성이 수환아 네네 둘이 그만 싸워 이놈들이!! 꼭 커서 성공해서 웃으면서 만나자.

-from 공과 포에버~

To. 영심치처패밀리



우리 8명 친구들 중학교 2학년때 만나서 우리 지금까지 3 년 동안 항상 축하 할 일 있으면 제일먼저 축하해주는 너네 가 고맙고~ 자격증시험에 떨어지고 가족이랑 싸우고 이런 슬픈거나 기분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격려도 해줘잖아. 같이 있는 것 만으로 도 나한테는 엄청 큰 힘이 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나 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지는데 너네 덕에 포기안하고 버틸수 있는게 같아 앞으로도 우리 싸우지 말고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자. 외노자 현우. 집주인 희섭. 라젠카 정수. 잘생긴 우현. 만쟁이 오태. 귀여운 한수. 재질이 지호! 다 내가 사랑해~

-from 보낸사람 동호.

To. 용용즈



우리 용용즈~ 과남이라 과생중 이지.ㅠ ㅠ 너네들 한참 공부한다고 힘들 건 같아서 이거 보고 잠~사마 웃고 힘내라고 쓴다. 이거 볼 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보고 반성해라. 수능 끝나면 알지? 이거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됨 ㅋㅋ 그래도 하기 전까지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또 이거 친구들한테 설명하지는 말고. 절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ㅋㅋ 다 같이 제주대까지 리틀 제주도인 적자. 우리 용용즈 수능 끝 날 때까지 파이팅!

-from 2 효진

